

劉忠烈傳

納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本明治四十五年六月十四日  
第三  
號

古朝  
48  
45-6

朝40  
757



古



유추영려천권지상

朝鮮總督府 保轉本

가설이타 디명국영종황제직위 초의황실리미약

능고법영이불형홍충의남만북척파셔역이강성

홍야무의할뜻슬두미이런고로천자남경의잇슬

뜻지업셔다른디로도음을옴기고치하시더니잇

셔미침창히국사신이왓스미성은임이요명은경

천이라호난사롬이왓거늘천자반겨인견하시고

점디호후의도음옴기물의논하시니임경천이쥬

왓소신이옥누의셔옥디산천을망기호오너금황

지카맛당호옴고천호명산오악지중의남악형

산이가장신령호산이요일국주룡이되얏고창오

산구리봉은변화호야외청용되얏고소상강동정

호는수세가광활호야너청용되야잇셔너수구를



충렬전상

48  
45-6

막어스니 제왕주가 장구할거시오 또 혼소신이슈  
년전의 본국의 쇠망기 혼온직 북두칠성청기가 남  
경의 하강하고 삼티성치식이 황성의 빛쳐스며 자  
미원덕장성이 남방의 쇠러쳐스니 미구의 신기 혼  
영웅이 날거스니 황상은 잇지조고 만 혼일노이러  
훈금성지 크를 노으시며 선황제만 크 구방지 크를  
엇지 일조의 노으시릿가 천자이 말을 드르시고 마  
암이 왜락 혼야도 음옴기시물 파 혼시고 국사를 다  
사리나시 철이 티평 혼고 인심이 조완 혼터라 잇셔  
의조정의 혼신 혼이스되 성은 유요 명은 심이니 천  
일천 조황제기국공신유기의 십삼티손이요 천병  
부상셔유현의손자라 체티명가후예로공후작녹  
이셔나지안이 혼터니 유심의 비살리청은 주부의

잇난지라 위인이 정직하고 성정이 민첨하며 일심이 충성하고 야국독이 중하니 가산이 요부하고 작법이 화평하니 세사공명은 일디의 체일이 요인간 부귀난만민이 충송되다 만실의 일점혈류가 업시미일노호탄야일년일도의 천영제사당면홀노안쳐우난말리실푸다너의 몸이 무삼죄잇셔국독을 먹거니와 자식이 업셔스니 세사의 좃타호들조흔줄엇지알며 부귀가 영화로 되영화된줄엇지알이나 죽어 청산의 무친빅골니라셔기두오며 천영화화를 누리라셔 주장리히음업난 눈물리 옷깃슬척시난지라 이르타시러니 부인장씨난이 부상셔 장춘의 장녀라 주부젓티안쳐셔가일심이 비감야알상공의 무후문소침의 박복

미라첩의죄를논지컨디발셔발일저스로디상공  
의음덕으로지금々지부지호오니붓그러온말씀  
을엇지다호오릿가듯사오니천호의철승호산이  
남악형산이라호오니수고를싱각지말고산신게  
발원호야청성이나들러보스니다주부이말을듯  
고디왈호날리첨지호사팔자의업셔스니비러자  
식을나을진디체상의무자호사룸이잇스리요장  
부인이엇자오디々체를싱각호면그말삼도당연  
호되만고성현공부자도이구산의비러났코청나  
라청자산도우성산의비러스니우리도비러보스  
니다주부이말을듯고삼칠일저게를청이호고소  
복을청쳐호며제물을갓초고축문을벌노이지어  
가지고부인과함기념악산을차쳐가니산세웅장

후여봉이 남쪽의 청송을 돌고 후여티고 시를 여이시고  
강수는 잔고 후여탄금성을 돌고 와다 칠천십아봉은 구름박  
기소사잇고 후암철벽삼의과식벽화다 푸렷고 소상암아침  
안기동청초로도라가고 창오산저문구름초산던로도라들  
며 강수령을 바라보며 수양가지부여잡고 옥철이들드러가  
니 연화봉이 중개로 다상당의솔나서 사방을 살피보니 옛  
날하우외가 구년지수다차리시고 후암철벽파든터가어제  
흐듯완연하고 산천이심이 엄숙곳의 천계당을 노피못고  
뵈마를잡든곳시완연후엇고추연을도라보니 옛날위부인  
이서동오륙인을 거나리고 도학하던일충단이문어젖다일  
충단별노모와노구발을정결이답이듯큰부인은 단후의과  
죄하고주부는 단상의게좌후야분침후축문을뒤여옥성으  
로축수할제그축문의후역스되유체차갑자년갑자월갑자  
일의디명궁동성문네의거후난유심은형산신령전의비난

후여봉전서

나다 오호라 디명퇴조창국공신지손이라 천덕의 공덕으로  
부귀를 겸전하고 일신이 무량하니 천광이 반이 넘도록 일심  
철류이 업쳐스니 사후 빈 끝인을 귀라 처엄토하니 선영형화  
를 누리라 처봉사하니 요인간의 죄인이요 지후의 악귀로 다 이  
리 호일을 심과 하니 원호의 만삼이라 이르호고 로 더러운 것  
성을 신령전의 발원하니 황천은 감동하니 차식 호나 첨지  
홍읍소서 빌기를 다 하니 자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  
할가 단상의 오식 구름이 스면의 용위하니 고산중의 비발신령  
이 일철이 호 감하니 정결케 지은 제물모도 다 흠향 호다 길조  
가 여차 하니 귀자가 업을 손야 빌기를 다 하니 후의 만심고 디 호  
던 차의 일호은 초삼을 어드니 천상으로 처오 순이 영농 호고  
일원천 만이 청용을 타고 내려오 말 호되 나는 청용을 차지 호  
선관 이더니 의성이 무도 호고로 상재게 알외도 의성을 취직  
호야 다른 방으로 귀얏을 보더니 너의 성이 글노 흠심 호야 비



오우주잔치시의의성고디천호호로상제전의두최하야인간  
의니치시미갈바를모로티니남악산신령이 부인되스로  
지시하기로왔사오니부인은이홀하음소쳐하고타고온청  
음을오운간의방송하며왈일후풍진중의너를다시차질리  
라하고부인품의달여들거늘놀니씨다르니실장춘몽황홀  
하다청신을진청하야주부를청입하야동사를철화흔디주  
부질거흔마음비홀디입쳐부인을위로하야춘경을북쳐두  
고성남하기를만심고리하더니과연그달부텀티기잇쳐십  
식이치인후의옥동자를탄심홀제방안의형취잇고문밖기  
쳐기가빗질녀성광은만지하고쳐치는충천호중의일원선  
녀오운중의너러와부인압피제좌하야벽옥삼의뇌인 파  
실을부인게주며하난마리소녀난천상 천녀옴더니금일  
상제분부하시되자미원장성이남경유심의집의환심하여  
스니네빛비나러가산모를구완하묘유아를잘거두라하시

가로빅속병의형탕수를부어동자를시치시면빅병이소멸  
하크유리디의잇난과실산모가잡수시면명이장성불사하  
오리다부인이그말를듯고유리디의잇난과실체기를모도  
주니천녀옛자오디이과실체기중의초기는부인이잡수시  
고또호나는공자를먹일거시오또호리는일후의주부가잡  
수실거스나다과기임자를속황게웁셔점적하신과실을다  
잇지잡수시릿가형탕수를부어초기를잡수후의옥동자를  
치금속의위여노코부인에게하직하코오운속의싸이여가  
반용의어릿던셔기셔나지인이하더라브인이천녀를보단  
후의이러안지니정신이상쾌하코형수초기운이전일보단  
비나더하더라주부를청입하야아기를보이며천녀의하던  
말을낮<치고하니주부공중을형하야옥황게사레하코아  
기를살펴보니웅장하코기이하다천청이광활하코지각이  
방원하야초상가튼두눈섬은강산경기셔엇고명월가탄압

가심은 천지조화품이시며 단산의 봉의 높은 두귀잇슬도라  
보교 칠성의 사인종학용준용안번듯후다 북두칠성말근별  
은두말독의 박계잇고 두릿춘디장성이압가심의박겨스며  
삼디성정신별리비상의셔잇난디주홍으로삭여스되디명  
국디사마디원수라은후이박겨스니웅장농고기이충문만  
고의제일이요천추의호나로다주부기운이쇄락후야부인  
솔도라보와왈이아희상을보니천인적강적실후고만고성  
웅분명후며천일황상계읍쳐도읍을옴기고겨후야창히국  
사신임경천다러무르시니인경천이알외기를북두청기난  
남경의후강후고자미원디장성이황성의셔러겨스니미구  
의신기호성웅이나리라후더니이아히가척실후니엇지안  
이질겨오릿가오리지안이후야디장철월을요후의형디후  
고상장군인수를금남의년짓너코부귀영화난성영의빛너  
고임기영풍은사치의전동홀제취안이충찬후리요산신의

집품은 덕 사후의 도난망이요 비록 끝인들이 질손야 일호를 충  
열이라 하고 자는 성학이라 하고 다 세월리여류하고야 칠체의 당  
하미 골격은 청수하고 총명은 발체하고야 필법은 왕히 지요 문  
장은 이 티벽이며 문예장약은 손오의게 지너더라 천문지리  
는 홍중의 갈마 두고 국가홍망은 장중의 미어스니 말달이기  
와 용검지술은 천신도 당치 못할네라 오회라 시운이 불합하고  
고조물이 시기호지 유주부세 더부 귀지극하고 너스름의 흥  
진 비리가 밋쳐스니 엇지 피할가 망이 잇슬손야

유주부난 조참적 소하고 장부인은 피화봉수적하고다

**고**이셔의 조청의 두신하고 잇스되 호나는 도총 더장정호담  
이요 또 호나는 병부상셔 최일귀라 본 더천상의 성으로 자미  
원 더장천과 박옥 누찬치의 더천호죄로 상제게 득죄하고야 인  
간의 적강하고야 더명국 황제의 신하고야 난지라 본시 천상지  
인으로 지략이 유어하고술법이 신묘호중의 금산사옥판도

사를 다려다 기별당의 거처하고 술병을 취와스니 만부<sup>2</sup>당  
지용이잇고 칩만군중디장지라 비살리알 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만민의 성사난 장중의 미어잇고 일국의 권세난 손  
뿔타달여스니 초최왕의 항적이요 당평왕의 알독산이라 일  
상마음이 천자를도 모코자후되다 만정언주부의 직간을세  
리후고 또 후퇴지상강히주의 삼소를세리 중지후연지오리  
더니 영종황제 직위초의 열국제왕터리 과<sup>2</sup>사신을보내여  
조공을바치되 오직토번과가달이강포만잇고 천자를능멸  
리후야 조공을바치지안이후거늘한담과일귀두사름아<sup>2</sup>  
셔를타쳐천자게엿자오되 폐후직위후신후의덕피만민후  
고위진사하후며 열국제신이다 조공을바치되 오직토번과  
가달이강포만잇고 천명을거살리니 신등이 비록적조업사  
오나 남적을향복바다 충신으로도라오며 폐후의 위엄이남  
방의가득후고 소신의공명은후세의전후이니 복원황상은

충렬전상

집피성과 흠소쳐 천자미일남적이강성흥은심흥더니  
이말을듯고디치왈경의마음뒤로기병하라하시니라잇셔  
유주부조최하고나오다가이말을듯고탑전의드러가부지  
주알듯사오니 폐하게읍석남적음치라하시기로기병하신  
단말삼이올스닛가천차왈훈담의말리셔차여차하기로그  
런일이잇노라주부엿차오되폐하엇지망영되게허락하시  
스닛가왕실은미약하고외척은강성하니이난자는범을지  
름갓고드난퇴세를노치이라호나트알리천근지충을전디  
릿가그런호벽성목심되니사장고훈이되면근들안이적악  
이요복원황상은기병치마옵소서천자그말를드르시고호  
의만단흥은차의호담과일귀일시의흠주능되유심의말을  
듯사오니살치무석이요오국간신동유로소이다덕국을저  
바리고도적놈만충찬하시키아미무리를덕국의비하고호  
나트알을폐하의 비하니일디의간신이요만고의역적이

라신들은 죄여 하, 건디유심의말리가 달을 못치게 하니 가달  
과동심하 여니 응이된듯하니 유심을 선참하 고가 달을 치사  
이다 천자하 라 하, 다할임하자와 공열이유심죽인 단말을듯  
고목진슈왈주부유심은 천황체기국공신유기의손이라 위  
인이접직하, 고일심이충전하오니 남적을치자마 전말리사  
리당연하 읍건글그말을죄라 하, 와충신을죽이시면티초황  
제사당안의유상공비형하 여스니 춘추로형사할씨에무삼  
면목으로보오며 유심을죽이면직간할신하 업사올거스니  
황상은심각하, 와죄를용셔하 읍소서천자이말듯고 초담을  
도라보나 초담이엇자오디 유심을죄하 실진디만사무익이  
오나공신의후예오니 죄목더로다 못하 오나정비나 하사이  
다천자올타 하, 시고황성받기원찬 하, 라 하, 시니 초담이천영  
하, 고승상부놈피안자유심을자바너여수죄하, 는말리네의  
죄를노저건디석참후게당연하, 나국은이말극하, 사네목숨

을살여주니일후는그런말을알나고연복으로정비하야  
 어셔빚비발칭하라만일잔말하다가는능지처참하리라주  
 부이말을드르미분심이창천하야양구의하는말리너무삼  
 죄잇판디연복으로잔말가왕망이십점하미호실리미약  
 하고동탁이작난하니충신이다죽것다나죽은후의너는을  
 쟈여동문의놈피달아가달국전장손의너의머리셔러지난  
 줄완연이보리라지하의도라가되오자셔의충혼이붓그럽  
 게말나호담이말듯고분심이창천하야알어명이려하  
 니무삼발명호다하고권문의드러가며금부도사치촉하야  
 유심을치질하야연복으로가라하는소리성화갓치촉하  
 니유주부하릴업셔적소로가라하고집으로도라오나일가  
 이망극하야곡성이진동하더라주부충열의손을잡고부인  
 다라하난말리우리년팡이반이남도록일기자녀업셔너  
 하초심이감동하사이아들을침지하야봉황의쌍를어더영호



를보라허나 가운데이소채하고조물리시기후여간신의참소  
를보와말니적소로되나가니심사를아지못출리라인의날  
의다시볼고날갓탄인심은조금도심각말고이자식을질너  
니여후사를바들대후여황천의도라가도눈을감고갈거시  
요부인의집은은덕후세의갑푸리다후고충열을보들고실  
피울며후난말리더아비무삼죄로말니연경의가단말가너  
를드고가는석름단산의나는봉황알을루고가난듯북히후  
흥이여의주를바리고가난듯통박고쳐문원정을일구로  
난설이라심과후니기가막쳐말할지리천이업고일시나잇  
자후니가삼의미친후이죽은들이질손야너의아비심과말  
고너의모친을모셔무사이지너며몸풀리푸리거든부자상  
면한줄알고잇스라후며방성통공후죽도를슬너충열을  
치우면서구천의상봉후들부자신표입실손야이칼을일치  
말고부디간수후여두라쳐자를이벌고형장을받비찰러

문박기나오니정신이아득하고초번걸요두번걸려얼거름  
박거름의구곡간찰다녹으며일편단심다녹것다성중의보  
는사롭늬안이낙누호며강산초목이다실허호다동성문나  
석면쳐연경을바라보며영거사를선라갈제삼일을침호후  
의침송영을지니여옥치관을당도호니잇셔는추팔월망간  
이라호풍은소실중고낙목은소호의정전익화셋은추  
구수심석여잇고벽몽의걸인달은삼경의회를도난의리  
창호등집분방의초불노벗을삼아리침베고누어스니타침  
의가을소리손익수심다녹인다공산의우난두견성은귀촉  
도불어귀를일삼고청천의손기력은호창박기실피울제  
침익의근호들잠잘가망이전이업셔그밤을지낸후의잇튼  
날질을셔나소상강을밧비건너여명나수를다르니이셔  
흔초회황제만고충신굴삼여간신의피를보고티반의장쳐  
호니후인비감호셔회서정을뎡피짓고조문지어스되일월

가치 빛난 충은 만고의 빛나잇고 글 석 가치 구든 절기 천추의  
발가스니 **이선** 의 지니 난스 롭 뒤 안이 감심 후 리 이러 타 시 실  
품 실을 선 판의 벗 처 거늘 유 주 부 글 을 보니 충 심이 직 발 흥 야  
형장의 필 목을 너 여 들 고 회 사 정 동 벽 상 의 뒤 자 로 스 기 를 뒤  
명국 유 심 은 간 신 정 충 담 과 최 일 귀 참 소 를 만 나 연 경 으 로 적  
거 후 더 니 일 월 갖 차 말 온 마 음 변 박 할 절 천 이 입 고 밍 설 갖 치  
말 근 절 기 보 일 곳 사 바 이 업 셔 명 나 수 의 지 너 다 가 글 삼 여 의  
충 혼 만 나 물 의 색 처 죽 으 니 라 스 기 를 다 훈 후 의 물 가 의 너 러  
가 셔 후 날 게 축 수 후 고 알 성 통 곡 의 옷 자 락 으 로 눈 을 가 리 고  
만 경 창 파 짐 품 물 의 월 적 썬 여 드 니 **이선** 의 영 거 후 던 사 신 이  
이 를 보 고 전 지 도 지 달 여 도 리 손 을 잡 고 말 여 월 충 성 은 천 선  
도 알 거 사 라 그 뒤 의 죄 안 은 천 자 의 게 미 여 스 니 명 을 바 다 적  
소 로 가 읍 다 가 이 고 뒤 죽 사 오 면 나 도 또 초 죽 을 거 시 요 그 뒤  
적 소 를 바 리 고 죽 사 오 면 무 죄 흠 은 천 후 의 아 난 비 라 천 칭 으

로천자감심하사수히방송할줄모르고죽어서충혼이될지  
 라도샷만갓탈손야호사하호말유하야박사장의드러니  
 유주부하릴업척회사정을지니여황주를라르니외회가  
 여기로다송나라망국사의일품되신더리국사를돌보치안  
 이하고풍악만일삼아일장취하난고로서회의고흔되도  
 셔시의게비하하스니엇지안이망극하랴그성을지니여니  
 삼석만의연경의당호지라유주부자사의게예사호되차사  
 본후의주부를인도하야괴실노전송하니주부물너나와적  
 소로드러가니이셔는동절이라연경은본디극초지라삼  
 장박실씨여잇고되락초리실방의넝풍은소실하크외설은  
 분하야인적이온이지니불상하크상하문충양치못할  
 네라

**이설**이라잇셔의정초담최일귀가유주부를참소하야적소  
 로보년후의마음이표만하야별당으로드리가옥관도스르

고천자를도모할요칙을무르던도사문밖기나와천기를  
자신이보고드러와하는말리이시의밤마닥살피온적두려  
손일리황성의잇난이다호던호담이문왈투러온일리라  
오니무삼일리잇난잇가도사왈천상의삼티성이황성의빛  
쳐스되고중의유심의집의빛쳐스니유심은비록연경의가  
스나신기호영웅이황성년의살아스니그던도모홀일리어  
리올뜻호노라호담이말들듯그의담의나와도사하는말  
을일귀다라하니일귀되왈모소의신기흠은천신의게지니  
나나신기호영웅이황성년의잇다하니진실노마음이황용  
호여이다호담이왈너신과하니유심이년만호되자식이업  
난고로수년천의형산의산제호여자식을어덧쳐호너도  
사의말삼이황성의잇다하니의심호던유심의아달인가  
호노라일귀왈적실리그러호면유심의집을좁몰동여추환  
이업게호미올을가호노라호담이올타호고그달삼경의가

만이 승상부의 나와 나졸심여 명을 최출중여 유심의 집을 들  
너쓰고 화약엄초를 갖초와 그 집사방의 무더노코 화실불꽃  
처일시의 불을 노흐라 고약속을 켜너라 이씨의 장부인이  
유주부를 이별초고 충열을 다리고 혼숨으로 세일을 보너더  
나 이날 밤삼경의 초림이 곤초야 침석의 조으더너 잇더 초일  
노인이 흥선일 병을 가지고 와셔 부인을 주며 왈 이날 밤삼경  
의 디빈이 잇슬 거스너 이부치를 가졌다가 화광이 이러나 거  
든부치를 듣들면 셔추인 단장 밋티은 신초 엿다가 충열만 다  
리고 인적이 곤친후의 남청을 바라보고 갓업시 도망초라 만  
일그렸치안이 초면옥 황게셔 주신아 달화광중의 고흔이 되  
리다 초고문득간 디업건글 놀너셔 다르니 남가일몽이라 충  
열이 잠을 집피드러 잇고 과연 흥선 초자루금침우의 뇌얏거  
날부치를 손의 들고 충열을 켜여 안치고 병 불민초던 차의  
삼경이 당초이 일진광풍이 이러나며 난 디업난 천불이시면

으로이러나니 응장조공루거과이흥노침설되야이고전후  
의삭인쇄간추풍나업되야소다부인이창황중의충열의손  
을잡고흥션을흔들면서단장밋티은선하니화광이충현하  
고희신만지하니구산갓치삭인기물화광의소멸하니  
엇지만이망극하랴사경이다응미인척이고요응고다만중  
문밖기두군스직기거늘문으로못가고단장밋티회하니  
니창난호달빛속으로두로살피보니중호단장안의나갈  
기러업셔스니다만물가는수치궁기보이건늘충열의뜻을  
잡고그궁기여 머리를넋코복지하니나올제침이삭  
인단장수쳐여로다지너여중문벗기니충열이며부  
인의몸이모진돌의글귀여셔빅옥갓탄몸이유철리낭자하  
고얼석갓치고흔얼물진추빗치되야스니불상하고가린하  
문천지도실허하고강산도비감춘다충열을압패안고서이  
질노나오며남천을바리고갓업시도망할시호고덕다르른

니 업 푸 큰 뵈이 잇스되 남기는 만장이 난중고봉우와 오식구  
름사면의 어리 셋거늘 자체이 보나이외 난천제후든 남악청  
산이라 천일보던 열골리 부인을 보고 반기난 듯 두려 호천제  
당이 완연이 보이거늘 부인이 비회를 금치 못중야 충열을 보  
들요 방성통곡중난 말리네이 외를 아난다 칠년천의이 산의  
와셔 산제후고 너를 나야셔 나이지 경이 되야스네 네의 부친  
은 어더가고이런 변을 모로난고이 산을 보네 부친 본듯중  
다 통곡중고 실품마음 잇지다 충양 충리 충열이그 말듯고 부  
인의 손을 잡고 슬며월이 산의 산제후고 너를 나이다 말가적  
시리 그러중면 산신은 이런 조연유를 알현마는 산신도 무정  
후네 부인이말듯고 목이 메여 말을 못중거늘 충열이 위로  
호더이슬키진 청중야 충열을 알보게우고 번양수를 건너회  
수가이다르나 날리임우셔 산의 갈여잇고 원촌의 천역너  
나고 청강의 노던 물서는 양유속이 나르들고 청천의 뜰가마



구난은간의손어들묘희사슬바라보니원포의가는듯더쳐  
문안기셔여시고강촌의이척소리세우중의츄날엇다살훈  
마음전청중요충열의손을잡고물가의비회후되건네달비  
전이업쇠후날을우려탄식을마지안이후더라이셔의청  
호달최일귀유심의집의다가불을노코셔이로엇보더니일  
진풍광의화광이일어나며웅장호르거각의일편진물업  
셔스니그안의든사롬싸모업시다죽것다늘고별동의드러  
가도사를보고다시우러가로더전일의우리등이덕스르일  
우고자후더니천심의말삼이영웅이잇단후고근심후더니  
이제도그러호지다시망기후흡소셔도사밧기나와천기를  
살펴보고방으로드러와후남말리이제남삼틱청이황성을  
셔나변양최수의빗쳐스니그일이수상호지라년싱나후니  
유심이가권이척소를차지랴후고회수가의갓난가십푸노  
라호담이말듯고안마음의싱각후되화광이그러게엄장

흐니 일 정소멸 중서 죽었다 하엿더니 일 정 영웅이면 버셔나  
미의이치안이 후다 하고 외당의 나와 날년군사다섯 명을 속  
출동야 분부 후 되니 영웅이 밤이 밤의 번양 회수가 다 달  
나니의 천갈 노분부 후 되금 명일간의 엿터 호터 인이 이 린 아  
히를 다 리고 물을 건너 략 후 거든 직시 결박 후 야 물의 디 흐라  
만 일 그리치안이 후면 회수의 사공과 너의 등을 낮치 죽이  
리라 호되 나 졸리 더 경 후 야 회수의 나 난다 시 달여 오니 과연  
물가의 인적이 잇셔 너의 우름 소리를 이거늘 사공을 불러 너  
니여 호담의 후 더 말을 낮치 치 후 너 사공이 더 경 후 야 더 왈  
감이 더 감의 영을 죽사 후 들 피 후 오릿가 후 고 소천 일척을 더  
이 고 더 후 더 라 부인 신 창 열을 다 리고 건널 비 업셔 물가의  
주쳐 후 더 차의 난 더 입 남 일척 소천이 석오며 부인을 청 후 거  
을 고 단 개를 모르 고 초신이를 이슬고 비의 슬나 중유의 당초 미  
일진 황풍이 일어나야 후 더 천창의 잡바 지고 난 더 업난 천

선인달여드러부인을잡아인고무수호청군더러사면으로  
달여드러부인을걸박추야적선의축겨달고충열로몸골간은  
디너더지나가려추다유주부천금귀자빈사장왜우중의무  
주고흔되거구나만경창과집포물은동남이라나나일정  
철로과충열의비플인들차칠손야육신인들건질손야일석은  
창망추고수승은천막추야명추누르목의강신이우난소  
리강산도실허추고천신도비감거든추물머스름이야이러  
무삼추라이석창부인이도척의게결박추야빈안의석구려  
척충이들을차진들수중의석척거든더담할수이슬손야초번  
불너더답안코두번불너소리업스니천만번을남부르든들소  
리침엽쳐지고사면의잇난거시충악초도척몸이노초노  
를밧비척이부인을치촉추야소리말고가자흔드러부인이망  
극추야물의석척죽고자흔들큰악초비닷졸노연악초간은  
몸을스면으로얼거스니선철끼리천이십고걸함승의죽자

호들섬호 호수 조수를 변트름업시 결박하여스니 결항할길 천이  
업셔도 적의 비에 실여 추릴 업시 지퍼가니 동방이 발가오며  
또 호고 더 비를 미고 부인을 잡아 너의 마삼의 안치고 마를 치  
질촉여 탈여 가니 체상의 불삼촌들이 여셔 더 홀손야이 석의  
회수사공마 용이라 호난놈이 삼자를 두어스되 다 용민이과  
인호고 검술리신요 호치라 장자의 일홈은 마철이요 일직상  
처호고 아진 취쳐치 못호야스니 마참이 석를 당호야 장부인  
의 일골을 보고 일터은 감초와스나 화용은 듣지 안코 수식이  
만면호야 골격이 수러호나 이 직은 호식이 그쳐잇난지라 더  
제장부인이 호영을 나을 석의 옥황이 천녀로 호여 금천도 호  
기며여스니 년망은 반이 누 호식은 불변이라 그런고로 회수  
사공놈이 호영을 물의너코 부인은 다리다가 안히를 삼고자  
호야 이런 변을 지스터라 이 석의 장부인이 호릴 업셔도 적의 말  
게 실여 호고 더다호르니 터산 줄 석암 석을 의지호야 수삼가

마흔리잇난지라 석결아리 발은 날의 초옥 속의 드러가나 큰  
굴방이잇스디스면의 주석으로 싸코출입은 단문은 철편으  
로 지어 달고 그 방의 부실을 가두오니 가련하다 장부인이여  
팔자도 무쌍하고 신세도 망척하다 수된 장상 최규중녀자로  
유씨의 출가후야 년왕이 반이님도 록 무자녀하다 가천천으  
로 자식호나 두웠더니 말니 연경의 가군 일고 천리희상의 자  
식을 이려스되야 또다분벽사 창어덕두고도 적놈의게 잡피여와  
이지경이되야 또다분벽사 창어덕두고도 적놈의 토굴방의  
안져스며 천금갓튼 자식 일고만 금갓튼 가군이 벌중고나 혼  
자살어나쳐 구천의 도라간들 유주부를 엿지 보며 인간이 살  
아 손들 도적놈을 엿지 볼요 무수이 통목 죽니 가군이 전후야  
토굴속의 누어터니 비자 혼년이 석반을 가져왔거늘 기진중  
야 먹지 못중고도로 보더니 또 초미음을 가지고 와쳐먹기를  
권중니 부인안마음의 심감중되니 아들 충열은 천신이 감동

혹고신령이 도은비라 일후의 응당귀이 될거스너이제언  
정으므로가쳐주부를다리고충열등을진딘체족스면후회  
가잇스리라혹고강착혹야이러안저미음을마사니비자반  
거적장의게고흔도적이다히혹야그날밤의도골방의드  
러가예혹고안지며왈부인은이러흔누치의와날갓튼이를  
섬기고저혹너진실노감겨혹오너다부인이그말를드르미  
분심이팅천혹너신쇄를성각혹너연약질리흙청의든범  
갓탄고로혹릴업쳐거짓답왈팔자기박혹야수중의죽게되  
야더너그던날갓탄잔명을구완혹야박된동거혹고자혹너  
감겨혹손말삼엇저다중양혹리요마는다만미안호일리잇  
스너금월초삼일은너의부친기일이라야무리녀자라도부  
친의제사날당혹야엇지날예를지너오며또호빈년을히로  
할진딘엇지기일을가리지어안이혹리요도적의그말를듯고  
질거온마음충양치못혹야정답게혹너말리진실노그러존

진디장인의 제사날의 사친 들엇지만 이 정성을 흥리요하고  
제물을 극진이 작만 출저스니 부디 영에 말고 안심흥 읍 소쳐  
부인 처사 후고 조금도의 심치안이 후고 반겨 후니 도적이 감  
사 후야 단 무타의 후고 안으로 드러가며 비자를 보니 여부인  
을 모시라 후니 비자 드러와 젓터 누워 잠을 지피 드러 인척이  
고요 후거늘 부인이 그날 밤 삼경의 도망 후야 나 오더니 방의  
자난 비자 년이 문득 잠을 췌여 만져 보니 부인이 간 뒤 업고 중  
문이 열여 거늘 부인을 부르며 쏜 차 오거늘 부인이 더경 후야  
것짓 안자 뒤 보난 체 후고 비자를 꾸치져 왈 연일고 상 후야 목  
이 마르기로 냉수를 만이 먹어 더니 비가 불안 후야 나와 뒤를  
보거늘 네이 관잔 말을 후야 집안으로 놀난 야 비가 후 후 후 후야  
방으로 드러가고 부인 도속 절업시 방으로 드러가자 더니 그  
밤을 지니 미잇튼 날 척 후의 부인의 말의 속히 후 후 후 후 따라  
고 제들을 작만 후거날 부인이 목욕 후고 방으로 드러 후 후 후 후

을살펴보니동벽상우의무어시노얏거늘셔셔보니기묘흔  
거시로다비목비석이요비옥비금이라광치천관축야일광  
을가리오고요식이취황축야안취이쏘이노중의천지조화  
를모로이갈마잇고강산청기난부판의시여쓰니고금의  
못보던옥흙이라용궁조화안이면천신의수품이라천명을  
살펴보니황금덩자로두려시사겨쓰되던명국도원수유충  
얼은기탁이라축엇거늘부인이옥흙보고되정실식축야마  
음의심과축되세상의동형동명이노잇단말가진실노너아  
달중얼의기물릴진더엇지이곳더잇난고축며충열아네의  
옥참은여그잇다마는너난어더가네의기물을모로난야  
옥참을곳쳐서그곳더노코밤들기를지다리더니밤이당  
후이적흔이젼물을만이작만축야부인의방의드러왔거늘  
부인이바다차로진설축엇다가자야반을지너미제사를  
파치고음보초추의과잠을잘서적흔이며노은등이며중



일토록근축기로가견이다잠을드러거늘부인이옥침을너  
여형장의십피사가지고바스기와북두칠성을바리고갓업  
시도망홀체호고되다크르니날이임우발거머큰질의너닷  
거늘침인다려무른작형능판되로라호거늘주침의드러가  
조반을걸식호고종일토록가되엇니를온지모를네라호고  
되당도호니압퍼큰물리잇고소호풍낭은도천호며창파는  
만경이라사고무인적호의청산안푸리여잇고심니장강빛  
물가의구진비는무삼일고무심호쳐빅구난스롬보고놀너  
난듯이리쳐리날어갈제실핀마음진호숨의피갓탄쳐는물  
속쳐려쳐빅사장의나러지너모리수의불근침이만침도  
화핀듯호고무정호저물시는춘국인가날아들고유의춘청  
강성은속철어석목미치너엇지안이호심호라부인아총일  
토록침의기운이근축야인가를차자가밤을지너고쳐호  
나비업셔물가의주쳐호너이셔여셔신의일모호고한수

충렬전상

十六

의명성호니진퇴유곡이라호릴업셔물가의차자가니그질  
리손어지호안이호고산곡서이로연호야잇거늘질동르일치  
안이호고침호드러가니무인적막호되다만들이난이두면  
점동우름소리와실품원성이소리뿐이로다청임을더우자  
바간수를말바가니창망호달빛속의수간초옥이보이거늘  
반겨급피드러가니신문의키지스며호노구문박기나오기  
늘노구보고예를호노구답예호고방호드러가자호니  
부인이드러가안지며살펴보니사면의녀복이업고남복만  
걸여잇고또호젓티방호로셔남척소리나거늘심신이불안  
호여좌불안석이라석반을머문호의노구할미문왈그되는  
귀집부인이판되잇지촌자이고되왓난잇기부인이되왈나  
난본디황성스름호로친경의가다가허상의셔수적을맛나  
명스르도망호야이고되왓난이다노구이말듯고젓방호로드  
러가자식다러일너와르져녀인의말을드르니가장고이호도

다수일천의드르니 석창동당칠놈이 회수사공하다가 금원  
초의희상의석초부인을어더빅년동거코차호다더니저녀  
인의말을드르니 수적을안나도망하여왔다하니 정영코당  
칠놈이어든제집이라 밤비이 밤삼경의선창동을들달하야  
마철을보고다러다가이제집일치말나호디노구자식이  
말을드르코급피후원의드러가알호필니여타고밤비칠질하  
여나셔나본디이말은철나마라순식간의석창동의탕도하  
얏난지라이셔의장부인의형여이공하여노구방의잠을집  
피드러셔니 비몽간의호노웅이언연이드러와부인젓터안  
지며왈금야의티번이날거스니부인은무삼잠을자시난잇  
가급피이러나 동산의올나가은신하섯다가변이러나거  
든밤비물가의나러가면일엽표주물가의잇슬거시니그비  
를타고급피환을면하라만일그러치안이하면천금귀체를  
안보하기어려올지라하고간디업거늘놀나셔다르니남가

일몽이라 급피이러나보니노구도간디업거늘침소장을업피  
쓰고동산의올나가은신초고동정을살피보니과연남으로  
셔일성망포소리나며화광이충천초중의무수초도적이사  
면으로에워뵈고호도적이춤활그제집이여그이신야초  
난소리산곡이진동초니부인이디경초야지천을분별치못  
하고천지도지동산을너머물가의다크르니사고무인

적락초디난디업난일엽표주물의미여스며비가온디일기  
선녀선창박기나셔며부인을지초초야비안의들나초니부  
인이창황중의비에올나선녀를보니머리우의옥연화를뜻  
고손의난봉미선을들고청의홍상의벽옥편를차스니진짓  
선녀우인간스름안이로다부인이황송초야국궁비레왈박  
명초천첩을니디지구원초니선녀의집문은덕엇지다갑부  
릿가선녀디왈소녀는남히용왕장녀옵더니금일의부왕이  
분부초시기를디명국유초열의모장부인이금야의도천의

변을 볼 거시니 네 밧비가 구완하라 하시기로 왔소니 부인  
의 명은 상제 도아난 비라 소녀 갖튼게 짐이야 무삼은 헤 잇다  
하릿가 부인이 상제게 치하할 재맛지 못하야 도적이 빌쳐물  
가의 다 달나 방포 일성의 난 디업난 화광은 장수가 설난 듯하  
모일 쳐소선의 양 돛슬 돕피 달아 살 갖치 달여드니 부인의  
탄비녀 서두어 발나 문지라 적션 중의 쇠일 원도 적이 창검을  
돕피 들고 현창을 두 다리며 흉성하난 말리네 이 번 어딘로 갈  
다 천신이 안이 여든 물족으로 드러갈 가지 말고 게 잇거라  
네의 호통 초소의 나는 시라도 썩러지고 닷난 김성도 모슈  
거든 요망 훈게 짐이 어딘로 가라 하난다 이 러타시 소리 하니  
비가 온 디 잇난 부인의 혼백이 잇슬 손야 창황중의 도라보니  
도적이 비현창으로 달여드니 부인이 흥릴 엄셔 통곡하며 하  
난 말리 무지 호도 적놈 아나난 남경유주부의 안힐너너 간신  
의 참소를 만나 이 지경이 되야 손늘네의 안히 될 수 잇난 야차

라리물의색져청벽고혼되리라도적이말듯고분심이팅  
천축야창검으로넙더칠제부인의탄비거의잡게되어셔니  
난디입난광풍이동남으로이러나떠벽사장씨인돌리풍편  
의훗날여비온다시셔러지니만경창과집포물리풍남이도  
도축야벽역갓치너러지니강산이두림거는도적농의일렵  
주가제여이전될손야풍남소리천지가진동축며적선의양  
돛디가부러져물가온디너러지니천축항장사라도희상의  
비를타고가자호들돛디가엮셔스니여도로가리요적선  
은총릴업셔비비만둥쓰고부인의일렵주는용왕의포주  
라바람분들파선할손야범중유의셔놈피셔살갓치다라  
갈제그비압편고요축여창파는잔고일씩은은호디  
속황이분부축야용왕이주신비여든염예가이슬야순식간  
의비를어덕의디이교부인을인도축야암상의너린후부인  
이정신을진정축야무슈치사고고침장은간수축야물가으

로올나갈제기후이진 차야 존보를 못갈데라 종일토로가  
다가 초요타다 크르니 산천은 수려하고 기령 언단정하니 이  
쌍은 천덕산 할애 동이라 그 못을 당도하니 날이 또 흐려 물거  
늘부인이 뇌곤 차야 물가의 쉬어안자 잠간 조으더니 전일 현  
몽 차던 노옹이 부인을 위하여 왈 부인은 악이다 진 차여 쓰니 이  
산곡으로 드러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잇슬거스니 밧비가 가라  
하거늘 놀니 차여 보니 청산은 울 크고 세는 진 크고 난지  
라 이러나 차자 드러갈 제 벽옥갓탄 모습으로 악 차 산곡  
질을 밧벗고 드러가니 모진 돌의 치이며 모진 담의 도치이며  
열발가락이 흐나도 성 차 티업서 유철이 남 차 고알신이 흥  
칙 차 니 세삼이 귀찬호지라 열티 환용 고은 열골수심이 만면  
하 여 피골리상연 차 여살마음이 전이 업서 죽을 마음만 간절  
하 다 실피안견우난 말이 현경을 가 차 하니 현경이 사만오천  
육백나라 녀자의 일신이 천산만수를 엿지 가며 몇날리 못 차

야서이러호변이당호되언경으로가다가는너신세혜절충  
고너목숨살수업깃다차라리고디셔죽어빅골이나묘향  
으로흐르니갈가나문호변이라도황성을다시보리라형장을  
쓸너옥호흐르니여노코비단수전으로주호글차를싸여쓰되  
모년모월모일의디명곡동성문너의사난유충열모장씨난  
옥호흐르니아달충열은게천호노라죽은호변이라도바다보  
라자이식여수건으로옥호흐르니여물속의너고디싱통곡  
호며초미를무름써고물의색져죽으려할제산곡시이로엇  
더호녀인이동의를젓티쓰고금간수의셔물을침다가부인  
을보고급피나려와말유충여삼상의안치고문왈부인은무  
삼일노이러호신고너집으로가자호거늘부인이문득노인  
이천몽호던말을생각호고셔라가니삼상외경시에수간  
초옥이정호호디치운이어리여쁘니군자스난디요신선잇  
난고시로다방으로드러가보니갈전야보호변상의갈여잇



고만 권서 책은 안상의 노와 쓰니 부인의 마음이 반갑고 안경  
하야 고상하던 천후말과 인경을 차자가다가 장노의 서봉변  
하던 말을 낫치고 호티 주인 도낙누하고 손도 실피우니 그  
안이 가련 호가 원티 집은 티명국 섬종 황계셔 벼살하던  
니 인학의 아 들니 처스의 집이니 인학의 모친은 유주부의 종  
숙모라 이별호지 적년이라 처스는 마음이 청백하고 청실이  
되치 하야 벼살노 잇더니 호직하고 산장의 드러와 농업을 심  
쓰며 학업을 일삼더니 심양강 오류촌의 도쳐사의 형실이요  
부춘산 칠니탄의 엄자룡의 절기로 다 세상 공명은 장자방이  
벽곡호고 인간 부귀는 소티부가 산금하니 만고의 일인 이요  
일티의 호나이라 뜻박기 부인의 말을 듯고 티경 하야 중당의  
마자에 필 후의 천후 말을 다 못하고 낙누 하야 왈 주부 처속  
을 이별호제 적년이라고 티지인 사변 하야 이 지경이 돌출엇  
지 알이요 셔로 울며 마음 위로 하야 은식 거처를 편이 공양

츠니부인의일신은무량하나다만흥창의미친츠이종시셔  
나지안이후야세월을보너라

회사정의힘봉티인츠고옥문관의적거노저삼한다

**과선**이셔의충열은모친을일코물의생져살질립셔셔니  
문드드발리닷케늘자셔이보고살피여보니물속의곤바우  
라그우의올나안자츠날를우려어미를찾더니갠티업고  
사면을도라보너청산언은츠고다만들이난이물시소리  
쌌이로다강천의낭자츠원성이소리삼경의살피우니충열  
이통곡츠며섯더니**익선**의남경장사터리저물을만이실코  
북천으로셔나갈제회수의비를노와범츠창유나러가더니  
체량츠우름소리풍편의들이거늘셔인등이끄이후야비를  
밧비져어우난곳을차자가나파연일동자물의셔실피을  
거늘곰피건져주츠의노코연골를무른직희상의셔수적을  
만나어미를일코우난이다션인등이비감츠여물가의나려

노고갈디로가라호며비를여복경으로침호더라충열이  
선인을이별호고정척업시단이다가초이일식호며꽃  
시차속호를제조동모셔호너추풍나염이요거리부종적호너  
형천의부운이라일골이치피호고침식이가련호다홍중의  
티장성은셔속의못처잇고비상의삼티성은현옥속의못처  
쓰니활달호기남자가도로여길언이라담만산턴부열이도  
무정을만나잇고밤안갈턴이호이도는왕성탕맛나잇고위  
수의여상이도주문왕만나기만유수맛치가난광음을호리  
즐너가나충열의고는년광십사세의당호지라천지로집을  
삼고사히의빚을부쳐도로의기결타가호고다호르니이  
쌍은초국이라영능을지너다가장사를바보고호물가의  
다호르니창망호빈물호의실품원성이소리로다빅스장세  
우중의빅구는비거비리선이로다후면을도라보니농죽창  
송우거지고적막호옛정자풍낭속의보이거늘그고되올나

가니 이물은 명나수요 이정자는 최소정이라 하난정자라유  
 주부가 글을쓰고 물의 생쳐죽고 처하던고시라 마음이 절노  
 비감하야 정자의올나가 사면을 살피보니 제일은 글삼여 힘  
 장을 써부치고그밋터만고문장풍월이며 힘인파과노정기  
 를사면의분쳐라 동백상의서로 두줄글리잇거늘그글을  
 보니 모년모월모일의남경유주부는 간신의귀를보고연경  
 으로적거하다가 명나수의선쳐죽노라 하엿거늘충열이그  
 글을보고정상의새우려져방성통공왕우리부친이연경으  
 로갓년줄만아려셔니이물의생져또다나 혼자사러나서세  
 상의무엇하리회수의모친일코명나수의부친이러쓰니하  
 면목으로세상의살아날고나도홍귀생지리라 하고물가의  
 나려가니 충열이우름소리용궁의사못찾년지라 천신이무  
 심할가 **이**의영능상의사난강히주라 하난 지상이잇스  
 되소년등과하야승상버살하더니 간신의참소를맞나 토사

하야 고침의 도라와쓰나 일단 충심이 국가 들 잇지 못하야 미  
양천자 오를 하날 일익쓰쓰민상소하야 구완하니 조경이 그  
직간을 세려 하되 그 중의 정호담과 최길취가 < 장미워 하더  
니 맛참 본부의 갖다가 회로의 우편 주점의 서자더니 비몽간  
의 오식 구름이 명나 수의 어리엿는디 청용의 물족의 색 지려  
하며 하날을 힘하야 무수이 통곡하며 비사장의 비회하건들  
너럼의 퍼히 하야 날식갈 들지 탈이러니 계명성이 나며 날리  
장차 발거늘 명나 수의 맛비오니 과연 엿더 하듯 자물가의 산  
자울거늘 급피 달여드러 그 아치 손을 잡고 최사경의 울나와  
죽세이 무러 왈 나 보엇더 하야 하로셔 어티로 가며 무삼연고  
로이 곳티와 우난다 충열이 우름을 논치고 티살 소자는 남경  
동성문 너의 사난 청언 주부 유공의 아탈이 읊더니 부친게 읊  
셔 간신의 참소를 만나 연경으로 적거 하사다가 이물의 색저  
죽은 종적이 회소경의 잇난고로 소자도 이물의 색저 죽고저

충을너다감상상이말을듯고디경철석하여알이거시엔  
 말인야글련의노병으로황성을못가셔니그디지인사변하  
 야이런변이잇단말가유주부는일국의충신이라동조의벼  
 살하다가나는년만하기로고혔으므로도라왔더니유주부의  
 련줄을몽중스나싱과하여쓰라의외라왕사는물논하고니  
 를뜻라가자하니충열의알디인은소자를생각하와가자하  
 읍쓰나소자는천지간불초자라사러셔무엇하며또초모친  
 이변양회수중의죽삼고부친은이물가의죽여삿오니소자  
 혼차살마음이업난이닥상상이달니여알부모가구물호디  
 너조차죽단말가세상사롬더리자식나셔조타하난거시후  
 스를보치지안이하이라너조차죽거디면유주부사당의일  
 점영화잇슬손야잔말고셔라가자하시니충열이하릴업  
 서감상상을뜻라가니영능쌍월개촌이라인가절비호디벽  
 계소리요만하고루가이반공의소사난디수호문창이

잇고 주류치기왕녀호되인물이준수하더라승상이충열을  
외당으두고안으로드러가부인소씨다려충열의말을낮  
치추니소씨가말을듣고충열을청하야손을잡고낙누하  
며왕네가동성문너사난장부인의아달이나부인의년만토  
록차식이업스민날과갓치미일호탄추더니장부인은엇지  
하여지려호아달을두웠다가영화를다못보고황천귀이되  
야쓰니세상사허망하다간신의치를입어충신이다죽으니  
나라인들무사하랴다른디가지말고너집의이브라추시니  
충열의비사하고외당으로나오나라이셔강승상이아달은  
업고다만일녀을두어난지라부인소씨녀아를나을적의일  
원선녀오음을타고나려외소씨를뒤하야왕소녀는우황선  
녀옵더니연분이자미원디장성과호가지로잇다가소녀를  
강문의보니미왔소오니부인은이출충습소셔하거늘부인  
이혼미중의녀우를탄성하니우모비범하고거동이단정하

야시셔음은견음부블통지하니녀충군자요총명지혜무쌍  
이라부모사랑하야되션하기를영예하디니천형으로충열  
을다려다가오당의거쳐고자식갓치질녀닐제충열의상  
을보니귀불가연이로다부귀작능은인간의무쌍이요영웅  
준걸은만고제일이라승상이디히하야너당의드려가부인  
다러혼사를의논하니부인디히하야알너마음도충열을사  
랑하더니승상의말리쁘호그려홀진디볼수다언하구혼사  
를치너은소셔승상이밧기나와충열의손을잡고네게디사  
를진탁홀말리잇다노부말년의무남독녀를두어셔니금일  
노볼진디너와천정이저실하니이제빅연고락을네게부치  
노라하신티충열이게좌하야나누하며여차오디소자갓토  
잔명을구완하야실하의두고자하옵시니감사무지로되다  
만통박하온이리충정중의소못차나니다소자박복하와양친  
시죽은줄도모르고취쳐하오면인간의죄인이라글노호이



로소이다 승상이 그말 듯고 비감하야 충열의손을잡고왈그  
도일시권도이라 너의집시도공도조실부모하고 장문의취  
쳐하엿다가성공을만나리국공신되야쁘니조금도설쉬말  
나하시고직시탁일중야길예를청중니신랑신부의아름다  
온거시현인적강적실중다예를라하고방으로드러가서면  
을살펴보니빛나고빛난거시일구난설이쇼일필난괴로도다  
동반화초집픈밤의신랑신부평성연분미자쓰니그사랑호  
말은엇지다충양하며엇지괴록하리밤을지낸후의이튿날  
승상양주게빈온디승상부친질거온마음을이기지못하더  
라이려구려세월이여류하야유성의나이십오세라이셔의  
승상이현석을엇고말연의근심이업스나다만유주부간신  
의히를보와명나수의죽으물싱각하니분심이직발하야나  
라의글을올려유주부를일원코자하야직시황성을가랴하  
거늘유성의말유주야왈디인의말삼은감격하호나간신이

만조후와국권을아서쓰니천자상소를듯지안이홀가후난  
 이다승상이불청후고급피형장을차려환섬으로올나가되  
 지상권공달의집의스켜를정후고상소를지여승지를볼너  
 천자게올이라후더라그상소의후여쓰되전승상강히주난  
 근돈수백비후후고상소우페후전후나니다환후후오나충  
 신은국가지본심이요간신을물이치고충신은나소와인정  
 을히후시키고덕을베후사창심을살피시면소신갓탄병골이  
 라도티고순후다시만나침산백골이나조흔양의무침가후  
 여여니간신의말을트후후후부유심을연경으로원찬후시  
 니선인의후신말살인후파인후보기를초기갓치후야맞기  
 로충신의입을막고간신의악을바다국권을아서쓰너엇지  
 안이후심후후후리가왕망이협전후이왕실이미약후고회왕  
 이위티후미항적이죽어쓰니복원황상은집피성과후후소  
 처신이비록죽난날이라도사은히갓사오나복원황상은충

신유심을 직시방송하와 폐하를 돕게 하옵소서 주달하올만  
삼무궁하오나 황송하와 근치나니 다 하엿거늘 천자상소를  
보시고 뒤로 하야 조정의 너리와 보라 하신 뒤 이셔 정초담회  
일귀강히 주의 상소를 보고 뒤분하야 직시 권하여 드려가엿  
자오 뒤 되신 강히 주의 상소를 보오니 뒤역부도라 충신을 왕  
망의게 비하야 폐하를 죽인다 하오니 이놈을 역술노다 사리  
여 능지쳐 참하옵고 일변제의 삼죽을 멸하 여지이다 천자하  
락하오 뒤 하담이 직시 승상부의 나와나 졸을 직촉하야 강히 주  
를나 입하라 하나나 졸이 청영하고 권공달의 집의가 강히 주  
를철망으로 결박하야 자바갈제이셔 강히 주 삼죽을 멸하라  
하난 말을 들었고 유성이 또 초연좌할가 하야 급피편지를 만드  
러 짐으로 보너고 철망의 사이여 금부로 드러갈제 백발이 소  
하하니 피눈물이 반하야 충신을 구원타가 장안시상의 무  
주요하오 단말가 죽은 초백이라 도용방비간을 벗하야 천추

의영화될거스르간신통호담은찬역하랴고충신을무삼  
하야원혼이되게하니살아도붓그럼지안이하랴무수의초  
원하고금부로드러가니이셔호담이승상부놈피안자승상  
을나입하야게하의살이고수죄하난말리네천일의자충충  
신이러하더니충신도역적이되담말가승상이눈을부름쓰  
고호담을보며왈판숙치숙이주공다려역적이러안이하야  
난야호디양화가공자다려소인이라하미어제들은듯하노  
라하니호담이더로하야좌우나를즐지촉하야수리우의놈  
피실코장안시상의나올제이셔의천자황티후난강승상의  
고모라승상죽인단말을듯고급피쳐자게드려가낙누하야  
왈드르니강히주를무삼죄코죽이난야찬정골육이다말들  
근강히주셔이라철사죽일죄가있다하어도날노보와죽이  
지말고원방의유찬하기를버리노라천자이연하야적시호  
다늘을블러죽이지말고유심일체로옥문관의원천하랴시

나출담이 청명하고 마지 못하고 옥문관의 원찬하고 강희주  
의 일족을 다 잡아다가 궁노비를 몽입하라 하고 일변나졸은  
명초하야 영농으로 간지라 **이** **이** 유심이 강희주 상상이 황청  
가신 후로 주야 염애 하더니 뜻밖기 강승상의 서간이 왔거늘  
급피기 퇴하나 하여 쓰되 오호라 노부는 천심 죄중하야 실하  
의 자식 업고 다만 일터를 두어 써니 천힘으로 그디를 만나 부  
귀영화를 보라 하고 녀아의 평심을 그디의 게부쳐서 나가  
이그러 호지 조물이 시기 호지 충심을 두완타가 말니 변방의  
심사를 모로 난이 이러 호변이 또 잇나야 노부난 연만하야 풀  
똥티 짐나고 여년이 불원하야 이제 죽어도 심지 안이 하건과  
녀아의 일심을 생각하니 가련하고 불상 호지라 천상 연분스  
로그디를 만나 신청을 미흡하야 이경이 되야 쓰니 형용이  
엇지 될지가 삼이 답하하다 그러하나 노부난 역음노 잡피어  
천망을 써여 옥문관으로 원찬하호녀의 일족은 자바다가

비속공차라하고나졸이나려가나그디급피짐을써나환을  
면하라만일신정을못이켜도망치안이후면우리두집의일  
점철육이침차고혼이될거시나부디도망하엿다가일후의  
귀이되거든너자식을차자바리지말고백년히로하야나죽  
은날의박주일비라도힘화물피운후의승상은일심기루던  
충열의손의만이흥양하고가라후면구천외의혼이라도일  
비주를만반수육으로먹고침산의써근세도춘풍을다시만  
나그은혜를갑푸리라하엿거늘충열이보기를다하미남자  
방의드러가편지를보이며침성의명이과박하야조실부모  
하고천지로짐을삼고스히로밤을부쳐부운맛치단이더니  
천침으로디인을만나남자와백년언약을미지셔나일연이  
다못하야이런변이쁘니엇지안이망극하리요입어셔고  
의호삼을내셔글두권을써두며다일의보사이다남자이말  
을듣고디경질석하야육성의옷을집고방성디곡하여와노

부무삼죄로말니호지의간다호며청춘소침이무삼죄로박  
명호고날갓토여자는성과말고급피환을면호소쳐홍상호  
폭을세여글두귀를지여주며급피나가소쳐호거늘유심이  
글을바다금낭속의년짓니코곡성으로히를지니라낭자  
울며왈가근이제가면언의날다시보며어명이지창호야  
궁비속공호거드면황천의가다시볼가호난이다창열이살  
피호며호직호고가난청이희상추야월의우미인을이별호  
듯호더라힘장을급피차려쳐천을바리고정처업시가더니  
신세를성과호미속절업난눈물이비온다시나려지며장  
천지질고진질의압피막켜못가것다쳐천구름을바티보고  
호업시가더라

소부인은청수의투사호고강낭자는창가의수절호다

**각본이** 소부인과낭자유심은이별호고일가의망극호야우  
름소리셔나지안이호더라불과소오일의금부도소나려와

얼개촌의 달여드러소부인파남자를 잡아녀수리우의 실  
코군사를 저촉하야 황성으로 올라가며 일변 집을 허러 못을  
파고 가니 가련하다 강승상이 체되로 잇던 집을 일조의 못을  
파니 집 소리만 들으섯다 소씨와 남자 속절 업시 잡혀 올라갈  
제 청수의 다르니 일모셔 산이라 괴실의 드러 잘 제 **이** 금  
부나 졸졸의 장호이라 하난 군사 전일 강승상 베살 혼쳐 예 장  
한의 부친의 승상부처리로 쳐 득죄하야 거의 죽게 되어더니  
강승상이 구하야 살인고로 장호의 부자 근은 헤를 주야 형과  
충더니 **이** 선를 당하리 불상하물 이 괴지 못하야 다른 군사 물  
으게 실 피우더니 그날 밤 삼경의 다른 군사 다 잠을 심피드러  
거늘 가만이 부인 자 난방 문 압푸나 아가니 **이** 선 부인과 남자  
셔로 부들고 울며 잠을 안이 자기 들 문 박기 지 침하코 부인을  
부르디 부인이 놀녀 문을 열고 보니 장호의 목치하야 가만  
이 엿자오디 소인은 금부나 장이 읊더니 전일 디 감며 살 혼쳐



예소인의아비나라의득죄하아죽게되었삼더니디감이살  
이시그로그은혜끝수의스못차와감기를바리더니이설를  
망총야소인이엇지무심하오릿가브리옵건디부인은너무  
염예마옵소서이날밤의명을도망하오시면그뒤는소인이  
당홀거스니조금도염예마옵시고도망하여살기를브리소  
셔부인이말을듯코마음이조금풀이여낭자를다리고장  
촌을싸라주점박기나서너밤이임무삼경이라인적이고으  
하거늘동산을너머십니를가니청주의다달나장촌이하최  
하고왈부인과낭자는이물가의색전죽은되를종고가옵시  
면후환이업실거스니부티사라나후수를보사이다하고가  
거늘이셔부인이낭자의신세생과하니정신이아득하야이  
레비록도망하야와쓰나청춘여자를다리고어디로가살며  
혹살아난들증상과현세를이별하고살아셔무엇하리차라  
리이물의색져죽으리라하고낭자를속여뒤보난체하프금

피청수의가신을버쳐물가의뚝코청강녹수집품물의뚜여  
드니가련하다강승상의부인벽옥갓탄고흔몸이어복중의  
장사하니엇지안이가련하라이셔낭자모친을지달이더니  
종시오지안이하거늘급피나쳐살펴보니사면의인적이업  
난지라마음이답호야모친을부르며청수가의나와보니  
모친이신을버쳐물가의뚝코간디업거늘발구르며또호신  
을버쳐물가의뚝코셔죽으려하더니이셔는밤이오경이  
라동방이장차발가오며마참영능골판비호연이외촌의갓  
다가회로의청수가의다호르니엇더호여자물가의셔통곡  
호며물의셔져죽호자하거늘급피쫓차와낭자를부드려물  
가의안치고연골무른호의체집으로가자하니낭자호스  
호고죽으려하거늘판비안단키유하야달이고와셔수양살  
을정호호의자식파티도를살펴보니천상선녀갓탄지라이  
골등너마닥수청을드려쓰면천금지산을볼비호며만양티



름팔간병풍돌너난듯산중의잇년경이엇지다기록한리춘  
풍이언듯하며경외소리들이거들차점차점드러가니오식  
구름속의단청하고취황호요루각이질비하야일주문을  
바라보니황금되자로서히광되산벽용사라두려시뵈쳐거  
늘산문으로드러가니일원디승이나오거늘그중의거동을  
보니소호두눈섭은두눈을덥퍼잇고벽변갓치두렸호두  
귀는두억기에늘어저보니청수호골과파은호정신은범  
송이안일네라벽팔염주육찬장을집묘혹포장삼의셔러진  
송낙씨고나오며유성을보고왈소승이연만하기로유상공  
오시난힐차의동구밧기나가맛지못하니소승의무례하물  
용사하음소서유성이디경왈천성이팔자귀박하야조실부  
모하고정척업시단이다가우연이고디와디스를만나오  
나그디지판디하시며소승의성을엇지아난잇가노승이답  
왈여제남남악형산화현만이소승의천의왔삼다가소승달

러부탁하기를 명일로 시의 남경동성문외의 사능유심의 아  
달충열이가 올기스니 축귀말고티집총라총시기로소송이  
차즈나옴더니 상용의복색을보오니 남경스름인므로아러  
난이다유심이그말을듯고일히일비총야노승을셔라드려  
가니제승터리좁장비례총며반겨총난지라노승의방의드  
려가셔반을머은후의그밤을편이쉬니이못슨천경이라세  
송으로도잇고일신이무량호지라이후로난노승과호가지  
로병셔도잠심총고불경도확논총니라이셔의티명천지무  
가각이요광덕신중유발총이라본신이천상스름으로심불  
을만나쓰니기이호술법을가르치고천지일월심신이며천  
총명산신령터리모도다좁역총니그저도와영민총물니라  
셔당총리요주야로몽부총터라

천자는기병쌍권총고 간심은투창적천중총다

**관심** 이셔의남경조신중의도총티장점호담파병부상셔최

일귀일상어리던유심과강히주를만리받기원찬하고도청  
백만을쳐결하야천자를도모코자하야신기호방법과둔곶  
장신지술과승천입지척과변화위신지법이며악화두시  
지술을통탈하게비와쁘니이놈도본신이천상의성으로인  
간스름은당하리엄더라일국만민지상이라소장지변이잇  
셔쁘니나라이엇지무사하라이씨는영종황제적위삼년춘  
정월이라국은이불형과와남흥노셔우며북적과동심하야  
천자를도모하라고서천삼십육도군창과남만가달이며  
토번오국이흡세하야장사팔천여원과정병오백만으로주  
야침군하야진남관의다달나겨셔를남경의보내고진남관  
의웅거호지라이씨의박성드리날이를보지못하엿다가뜻  
밧기났을만나니농상낙하야여스지스방피란하니적연도  
탕진하고창곡도진갈춘지라하날리정호운수글이안코어  
이하라이씨천자정월망일의호산티의올나망월하고환궁

하야 더연을 비결하고 상동낙질기더니 뜻밖기진남관수  
문장이장개를올여거늘급피리탁하니 하여쓰되남적이강  
성하야오국파홍역하야진남관평사들보니더에게득호  
고백성을노략하며황성을치라호오니밤비군병을보니여  
도적을막으소서호엇건늘천차더경사제신을모와의논  
흔사이셔청호담파초일귀이말을듯고더하야급피별당  
의드러가도사를보고박기도적이려난단말을호고더사  
를무르니도사문의나셔천기를살핀후의시저로다신  
귀호영웅이황성의잇난가호엇더니이제죽어쓰며셔맛  
참추위도적이려나쁘니이노그더천자홀수라급피물실  
하라하니호담이더하야일귀로더부려갑주를갖초고걸  
문으로드러가난지라이셔천자제신과방적홀새를의논호  
더니장안의바람이려나며일원더장이게하의복지주왈  
소장동이비록죄조업소오나호번나가남적을홀몰중와환

상의근심을덜고소장의공을세워지니드하거늘모다보니  
신장이심여척이요면목이웅장호되황금투고의녹은포를  
입은거슨도총되장점초담이요면장의숯먹갓고안치가황  
홀동며백금투고의총은포를입은거슨병부상쳐최일귀라  
천자단히하사양장의손을잡고알경등의창성지락은짐이  
무아난지라남적을홀몰하야짐의근심을덜게하랴양장  
이청영호고과물너나와정병오천식거나려형군하야진  
남판의유진호고그날밤의군수호명만잠을써여가만항쳐  
를써주며또호편지를써쳐져진중의보너고최담을기달이  
난지라근군사적진의드러가적장을보고항셔를울인후의  
또편지를드리거늘적장이디히하야작시기퇴하너하여브  
되남경장사경호담최일귀는일장셔간을남진되장소의울  
이난이다우리양인등이갈창진심하야천자를도와국가의  
유공호고백성의게타이잇쳐지성으로몽공하되지귀하난



인군을 못만나 흥시양호마음이 잇단지라 티정부세상의  
나셔엇지남의신흥을리되리요남아유방백세홀진티역당  
유취만련이라 흥어쓰니이세를당중야엇지요게업스리요  
우리양인을션봉을삼으시면흥복잘거시니그티뜻시엇더  
호요최답을보더라 흥엇기늘직장이그글을보고티히흥야  
알우리동이남경으로나올세의도스근심흥기를칭호담최  
일귀를염예하더니이제저의동이몬져항보교쳐흥니이난  
천위신조흥미라 흥교직사회답을써준티근사급피본진으  
로도라와답셔를올이거늘셔여보니 흥여쓰되그티의마음  
이우리마음갓탄지라선봉을원티로맛글거시니금야의반  
가이보사이다 흥엇거늘정최양장이급주르갓초오교쳐진  
의드려가난지라의적의중군장이급피황성의올나가전후  
수말을천자의게고흥티천자의말을듯고흥상밋티셔려져  
빌르루르며정흥담최일귀적장의게흥보공여쓰니적진은

범이날기를어든듯하고짐은용의물을이려쓰니이제는홀  
일업다성중의잇난군사났고치총독하고각도각음의형관  
하야군사와군량을준비하고우상상조정만으로도성을직  
키고터자로중군을정하고상이친이후군이되어형군을  
지촉하니군사십여만이요장수백여원이라형군고를지촉  
홀제전일길주자스갠터니형이원문박기복지주알소신이  
제조업소오나이셔를당하야신자도리여엇지스적을도음  
지안이호오릿가소신으로션봉을정하고소셔천자디히하  
샤직시니형으로션봉을삼아도적을막을셔이셔정호담최  
일귀적진의항보공야호담은션봉이되고일귀는중군디장  
이되야금피황성을지천드려오며의기양하고호령이업  
숙호디기치참검은팔공산나무갓치버려잇고투묘묘옷은  
호천의일팔갓치안치가쇠이고듯금고호성은천지진동하  
고목탁나팔은강산이뒤높난듯순식간의드려와금산성반

니들의 빈틈입시버려셔 너외음양진을치고도사진중의  
망피하며 샅홍을지축하니적진중의셔방포일성의호장수  
너다라웨여알명진중의천극호적수잇거든박비나와디적  
하라하니명진중의셔응포호호좌의장주선우응성호말  
열드러삿을시양진군사처음으로귀정하니항오를차리지  
못하야승부를귀정하더니수합이못하야국호의갈이번듯  
하며주선우머리마호의셔러지니명진중으로좌의장죽으  
물보고호호장수너다라원문박기고성왕극호은기지말고  
최상정의갈을브드라하니극호의달여드러홍성이셔처지  
고그갈리번듯하며최상정의머리셔러지니명진중의셔선  
우의장죽으물보고왕용열의용성호말여드러극호파사  
을시일합이못하야거의죽게되여셔니명진중의셔팔디장  
군이일시의달여드러왕용열을루완하더니적진중의셔명  
진팔장나오물보고호호진이극호파합의셔야팔장으로더부

러 벗오더니 호진은 서편을 치고 극호는 동을 치니 촉척의 죽  
난군사 그수를 모를테라 삼흙이 못중야극호의 창검싹티말  
장이 다 죽으니 이세티자 중군의 잇드가 팔장죽으물보고 불  
승분심하야말을 타고 진문박기나셔며 위어왈 무도호남적  
놈아 천명을 거역하니 죄사무죄이로다 너의 진중의 정호담  
최일귀머리를 버혀 명진중의 보닌난지 잇스면 옥시를 천하  
리라 하극호를 마자 싹오더니 선봉장니 황이 말을 듣고 달  
여오며 티자는 아직 분을 참으소서 소장이 잠으리다 하고 나  
는 다시 드러가 좌수의 칼을 들고 극호의 머리를 베히고 장창  
을 들고 호진의 머리를 베쳐 두손의 갈나 들고 좌우로 총돌하  
야 본진으로 도라오니 적진중의 서호담이 장막밖기나서며  
청사마를 치쳐우창검놈피들고 발로 명진을 디칼의 흙몰  
코자 하나 이세의 몬져 남적 선봉으로 왓던 정문벌이니 다라  
호담을 불니 왓티장은 분을 참으소서 소장이니 황을 잡으리

다하고 번창출마하야 싯호더니 일출이 못하야 문벌의 칼이  
진중의 빛나며 니황의 머리마하의 너려지 난지라 문벌이 칼  
싯티예여 들고 본진으로 힘하다가 도로여 명진 선봉을 지쳐  
드러오며 명진은 불상하인심을 죽이지 말고 밤비호보하라  
하며 순식간의 선봉을 다 버히고 달려드러 창군으로 드러오  
거늘 티자 창군을 죄키다가 당치 못하출알고 호노파천자를  
모시고 금산성으로도 망호지라 이씨의 문벌이 명진 장수를  
씨도 업시다 죽이고 명제를 차진 적도 망하고 업난지라 군장  
복식을 모도 다 탈취하오 본진으로도 오며 철호담이 바로  
달려드러가니 천자 망극하야 옥시를 쌍의 노코양천통곡왈  
짐이 불명하야 선황제 사백연왕업을 일조의 정출담의게 일  
게 되니 이노양 호유환이라 누를 원망하리요 모도 다 짐의 불  
찰이라 황천의 도라간 들 선황제를 잊지 보며 인간간의 살아 쓴  
드러되놈의게 물음을 잊지 설하하며 금산성이셔나 마게 통곡

이진동충터라수문장이보충되치남절도스군병을거나려  
왔난이다천자티히충야밭비입시충라호티절도스군사십  
만병을거나려성중의드러가천자게보이거늘직시절도사  
로천봉을삼아도적을막으라충니절도사청영충요성충의  
유진충엇더니이셔호담이도성으로드러가용상의놈피안  
고백관을호령충니만조백관이일조의항복충더라만성인  
민이도적의밤이되어물살투충더라이날호담이삼군을지  
촉충야금산성을쳐과충고옥시를앗요자충야성충의다  
르니명진군스질을막거늘정문벌이필마단창으로명진을  
지쳐좌우로충충돌충니일신이검광되야맛난압푸장졸의머  
리추풍낙엽이요호천주퇴갓더라순식간의죽이고산성문  
밭기달여드러성문을두다리명제야옥세를드리라충난  
소리금산성이문어지며강산이뒤놓난듯충니성중의잇난  
군사훈백이업셔브니그안이가련호가천자와도정만이황

고금고하여북문을열표도망하야암석간의은신하엇더니  
이셔티자황후와티후를모시고도망하랴하더니문길이성  
중의드러와천자를찾다가도망하고업시미황후티즈를잡  
아본진스로보니고도라오니경호담이황후를활박하야진  
압후살이고천자간곳슬가라치라호티황후망극하야티답  
치안이하건늘좌우군사창검을갈나들고옥체를천우면셔  
바른뒤로가라치라하니황후황망중의디답하되이몸은제  
집이라성중의못쳐잇다가불의예난을당하야천자는박기  
잇난고로심소존망을모로노라호담이분로하야황후티즈  
들진중의두어주려죽게하고용쌍의놈피안자천자의일을  
칭하며군소를호령하되명제를사로잡난지잇스면천금상  
의민호후를봉하리라하니군사칭영하고각진으로도라오  
니라이셔천자금산성의셔도망하야조정만스르더부러산  
곡사이의은신하고잇던나황티후적진의잡피여가죽이려

후난말을듣고통공중여암중의니려쳐죽고자중거늘도청  
 만이부드려구완중야천자를업고명성원으로도망중야갈  
 제천자게잇자오디남경이진탕중여쓰니도적청호담잡기  
 는시로이청문벌잡을장수업스니이체산동육국의청병중  
 와쓰오다가사불여의사거든옥신을가지고소신과함기용  
 동수의선져죽사이다천자올이여겨조셔를써산동육국의  
 주야로가구완병을청중니이셔육국왕이말을듣고과  
 군사십만병과장수천여원을조발중야금피남경명성원으  
 로보너나라이셔육국이함쇄중야호산디널운של의빈틈업  
 시힘군중야드려오니천자디히중야군중의드려가위로중  
 고쳐진형세와수차피중물너치말중고적응으르쳐봉을  
 상묘도청만으로중군을삼아황성으로드려올제궁중장호  
 거동은추상갓탄지라박사장박이너여군사늘려셔들어  
 오니남경이비록진탕중여쓰나무셔운거시천자의괴근테



라금산성호의유진호고必흥을도호오니이서정문벌이천  
봉의잇다가천병이오물보고필마단창으로진문을열고나  
오거늘호담이문걸을블너왈적병이저디지엄장호디장군  
은엇지경현이갈야호오문벌이답왈폐호엇지소장의지조  
를루히알으시난잇가장편군졸사십만파비그를호찰의다  
죽여쓰니남경이비록육국의천병호야의만병이왔거니와  
소장의호찰뎡티죽난귀경안자셔보음소서호담이디히호  
여장디의놈피안저必흥을귀경할신문걸이창검을좌우의  
갈너잡고마상의놈피안자나난다시들어가며호통일성의  
명제야옥시를가져왔난야너들자부려호엿더니이제와브  
미진소위춘치자명이라박비호보호야잔병을모조호라호  
그덕만군장의무인지경갓치횡횡호야동잔을치난듯남젓  
을버히고북장을베히난듯셔장이씨러지니죽난군사여산  
호고유혈이성천되야도다셔초위왕이강동전너흥곡관을

부시난듯상산도자룡이산양수건너삼국형병지치난듯문  
벌이닷난곳마닥씨홀군사업셔쓰니그안이망극홀름이셔  
천자도쳤만과옥시를갓고용동수의선지고자하나또호도  
망홀지리업셔하날을우려탄식하괴를마지안이하더라  
백용사의득갑주창검하고 송임촌의득천사마하다

**[고칠]** 이라이셔유충열이셔히광덕산백용사의잇셔노승과  
흔가지로지음이되야체월을보너니잇셔는부흥십삼년  
추칠월망간이라흔후조하고낙목은분호되고칭을성  
과하야신세를싱과홀제월경야삼경의홀노안자비감하더  
너노승이려나바기갓다드러오며충열을볼너월상공이  
금일의천문을보와노잇가충열이놀너여금파나와보너천  
자의자미형이셔려켜명성원의잠겨잇고남경의살피가득  
하엿거늘방으로드러와하승진고나누하너노승이왈남경  
의병난은낫건이와산중의피난하너스름이무신근심이잇

스리가 충열이름의 왕소성은 남경세록 자신이라 국변이  
려하니 엿지근심이 업시 리요만은 죄수단신이 만리밖기잇  
스오니 호탄호든든 엿지하리요 노승이 웃고 벽장을 열듯 옥함  
을 내어 노으며 왈 옥함은 용궁 조화거니와 옥함은 만수전은  
엇더호스름의 수적인지 저세이보라 유심이의 심하야 옥함  
을 살피보니 남경도원슈유충열은 기탁이라 금자도석여엿  
고 왕민수전을 살너보니 모년모일모일의 남경동성문너의  
스는 충열의 모친장부인은 너아달충열으게 부치노라 호여  
어는 충열이 슈전과 옥함을 부들고 방성통고공거늘 노승이  
위로 왈 소승이 수년전의 절충장화주로 변양화수의 다스르  
니 기이 호오외구름이 수전의 틈피거늘 밤비가 서보니 옥함  
이 물가의 노얏건늘 임자를 주랴 호갓다 관슈호엿더니 금  
일노볼진디 상공의 전장기계가 옥함속의 잇나 가호난이다  
디 쳤이 옥함은 죄수가 사는 마철이가 물속의 잠수전스다가

큰거복이< 옥홍을치고나오거늘마철이거복을죽이무옥  
홍을가쳐다가계집의두어셔니전일장부인의도적의게잡  
피어셔장동마철의집의셔옥홍을갓다가수건의글씨고  
회수의녀어셔니빅용사부체충이가겨다가이날충열을추  
잇난지라이셔충열이옥홍을안고왈이거시일점충열의게  
물일진티옥홍이열일지라호고우확을여려노으니빈틈업  
시들어어어늘보니갑주호변과장검흔다척충원이드것거늘  
투고를보니빅금비옥이라판치찬란호야안치를쏘이난중  
의속을살펴보니금창로일팔주라삭여잇고갑옷슬보니용  
궁조화적실호다무어시로만든줄모를네라웃짓밧티금자  
로삭여잇고장검은노여브되두미가업난지라신화경을페  
여노고갈써난법을보니갑주를입은후의신화경일편을보  
묘천상티장성을세빈보거드면살린칼이절노페여변화무  
궁할지라호엇거늘작시<염호니심처장검이번듯호며사

공을 놀니거늘 호가온티고 장성이 선별 갖치 박 켜잇고 금자  
로삭이기를 장성 겁이라 호엿거늘 모도 다 힘장의 관수호고  
노승 다려 왈 천형으로 티스를 만나 곱주와 참침은 어더 건이  
와 용마 업쳐 버니 장군이 무용지고라 호티 노승이 답 왈 옥황  
계은셔 장군을 티명국의 보닐 제사히 유헌왕이 몸을 존가 수년  
전의 소승이 셔역의 가을 케 벅 용암의 다르니 어미 일은 미  
야지 누엇거늘 그 말을 다려와 쓰나 산승의 게부당이라 송임  
촌동창자의 게막기 고와 버니 그곳을 차자가 그 말을 어든 주  
의 증노의 지체 말고 급 피 황성의 독 달호와 지금 천자의 목숨  
이 경과 의 잇사오니 급 피가 셔 구완호라 호티 유헌이 말을  
듯고 송임 촌을 밧비 차자가 동창자를 만난 후의 마를 권경호  
자호니 이셔 천사마 제임자를 만나 버니 벽역 갖탄 소리호며  
벽역 장토골을 너머 켜여나셔 충열의 게 달여 드려 옷도 물며  
몸도 티어보니 우장 호거 동연 일 필 노난 기로 다 심산 명호첩

충열년

三

허선듯북희츙용이벽공의울드난듯강산형기난안치의갈  
마잇고비룡조화난네곰의번듯호디퇴밋티일점용인의삭  
여쓰되사송천사마라호옛것늘유성이티히호야장자다려  
말을사자호니장자우어왈수년천의벽용스부체중이말  
을막기며왈이말을질너너여임자를차주라호기로맛다  
질너셔니이말리장성호의잡을지리업셔토굴의가두어쓰  
나천만인의귀경호되호나도갓가이못가더나오날호그디  
를보요제시스로차자오니북체중이일으던임자그디가적  
실호니호날이주신보비너엇지판단말가물과유주오니가  
저호호소셔호디유성이티히호야안장을가초와동장자를  
호적호요송임초을지너어광덕산을형호야노승의게치호  
호고적년정회를호적호제사중의제승드리별회치담을엇  
지다셜화출고괴록호리호적호고그말우의곰의울나안자  
남경을바라보며구름을가라쳐말다려경개왈호날은나를

너시고 윗왕은 너를 빌케 구드시오도다 남경을 돕게 하리라  
이제 남척이 황성의 강성 추야 천자의 목숨이 경과의 잇다 추  
니디 장부 급 초마 오 일과 이여 삼 추라 너는 심을 다 추야 남경  
을 문식의 득 달케 하라 그 말리 그 말을 들고 청천을 빌라 보며  
벽연갓도 소리 추고 빈운을 헛쳐 나난다 시드러가니 스름은  
천신이요 말은 비용이라 남경을 바람 갓치 달어 오니 금산성  
추널은 그들의 살기가 충천 추고 황성둔안의 곡성이 진동 추더  
라이 셔 천자 중군 조청 만으로 더 부리 옥시를 가지고 도망 추  
야 용등수의 선져 죽고 자 추되 천진을 버셔 날질이 업셔 황  
망극 추던 차의 문득 북편으로 천병만 마 트러 소며 천자를 부  
르거늘 천자 디 명군 사오난가 반거 버리더니 남척 파동 심 추  
야 마룡이 진공이라 추난 도스를 다리고 천자를 치려 추야 억  
만군 병을 총독 추야 일시의 드러 오니 이 선의 청호담이 천자  
되야 비관을 거나리고 최일귀는 디 장이 되야 삼군을 경계 쫓

제또호복적의흠세하야그형세웅강하미만고의웃듬이라  
션봉장경문걸이의기양하야명진육국청병을출칼의다  
못지리고션봉을허쳐진중의드러와명제야항보공라니호  
칼의육국청병다죽어잇고또호복적의흠세하야스니네어  
이당홀손야밤이나와항복하네의모자를차쳐가라하고  
짓쳐드러오니이제천자하릴업셔옥석을목의걸고항셔를  
손의들고항복하라하고나올적의중군조정만파명진의나  
문군스엇지안이호심하고실푸리요천자의우름소리명성  
원이셔나가게방성통공하며항복하러나오더라



유충열전권지하

광철리 서충열이 금산청호의 처망기호다가 형세위급호를  
보고일광주승인갑의장성검을높피들고천사마를치질호  
야빛비중군소의드러가조형안을보고성명을호려호호  
를청조디중군이빛비나와손을잡고술여할그디충성은지  
극호나지금회상이충복호략호시고호호적진형세저려호  
니그디청춘이려장벽골이될거스니원통호호망극호다충  
열이불승분기호야진문빛기나저면저벽역가치소리호야  
적장을불너할이바역적정조남아남정동문디의사난유충  
열을아난다모로난다빛비나와목을드리라호호난소리양진  
이뒤누의며천지강산이진동호니문벌이디경호호야도라보  
니일광트호의안치소이공용인같은혼신을감초호호천사  
마는비룡이되야운무충의씨이여공중의소리만나고계는  
의난보이지안이호나참검안검피들고주저주저호호차이

벽석갓탄소리듯뒤장생갑이번듯하며정문벌의머리공중  
의버혀들고중군으로달려드너조정만의업더지며문밖기  
급피나와손을잡고드러갈제이여천자는옥시를목의걸고  
창서를손의들고진문밖피나오다가뒷밖피호통소리나며  
일원뒤장이문벌의머리를버혀들고중군으로드러가거늘  
뒤경뒤치츄야중군을급피불너살적장버치던장수성명이  
뉘냐밧비입시츄라충열이말케나려천자천의복지호던천  
자급피문살그되는뉘신지죽을스름을살나난가충열이저  
의부친과강치주죽을물결분이익여통곡츄며엇자오던소  
장은동성문너거츄던정언주부유심의아달충열이옴더나  
주류기걸츄야말리밧세잇삼다가아부원수갑푸랴고셔귀  
잠과왓삽거니와페츄정초담의개근립츄심은공중이로소  
이다전일의정초담을충신이라츄시더서충신도역적이되  
난잇가그놈의말을듣고충심을원찬츄야다죽이고이런환

슬만나시니 건지아득후고일심일이무팡후습너다실피듯꼭  
후며머리를사의두달리니산천초목모도시러후며만진중이  
낙두안이후리업터라천자의말을드르시고후최막급출말  
업석우두견지안자터니터자적진의잡퍼갓다가본진의서  
문결베치물보고탈신도주급피와셔황상젖터안자다가충  
열의말을드르고보심말노나려와셔충열의송글분들고활형  
이게웨말인가옛날주성왕도관치의말을듯고주공을의  
심터니회과자척후야성군이되야쓰니충신이다죽기난막  
비천순이라그런말을충지말고진충갈역후야황상을도스  
시면터산갓토그공되는천후를반분후고하히갓토그은혀  
는푸를미자갑푸리라충열이우를을근치고터자상을보니  
천자고상적실후고일터성군될듯후야투고버셔셔의노고  
천자천의사죄활소장이야비죽스물초토후야분심이잇난  
고로적절중말상을페후천의살외셔브너죄사무석이러소

장아죽사손들폐추를돕지안이후소릿가천자충열의말을  
듯고치이게후의나려와셔투고를베이면셔손을잡고후난  
말리파신은보지말고그덕선조창건후년일을싱각후야나  
라를도좌주면티자후년말더로그덕공을갑푸리라충열이  
청명후고물너나와장더의놈과안자군사를총독후니피병  
창졸리불과일리빅명이라천자삼충년의놈과안차후날게  
제사후고인검을얼너너어충열을주신후의덕찬사명기세  
친필노쓰시기를더명국덕사마도원수유충열리라두려시  
써너주니원슈사은후고진법을시험홀재장사일자징글켜  
두미를상훈게후고군중의호령후되남북적병이비록억만  
병이라노너혼자당후려너와너의동은침소를일치말나약  
속홀제이적의적진중의셔문널죽스물보고일진이진동후  
야셔로나와싸오려홀시삼군덕장최일기분기를이기지못  
후야노목포순갑의백금투고를쓰고장창더검을좌수의갈나

들고 저 제마를 치절추야 나난다 신말여드려위여왈적장유  
충렬아네아직이거추야남북강명익안군를등멸리성과추  
니 밧비나와죽어보라원슈장덕의있다가최일귀관말조를듯  
고 밧비나와승성추되정호담은어디가고녀안엇자나와난  
나네의두놈의관을니여우리부모성위천의지비추고드리  
리라홈성추고닥여드러장성검이번듯추며일귀가진장장  
덕검이편과쇄부션지니최일귀덕형추야철퇴로치자호  
들원슈일신이보이지안이추너치자호들이이추리셔진중  
의신속관도사쓰호호를귀병타가덕형추야급피정을치거두  
소니일귀제수본진의도라와전심을일엇나지라잇덕북적  
현몽마룡은천축의명장이라충렬을잡지못추고도라소물  
분이의여진몽을헛쳐왈데장은엇지조고안호아치를살여  
두고소나닛가소간의잡아오리나다추며나난다시드러스를  
계복적진중의셔쓰호도사진추이나와마룡의말머리를잡

고월경장은가지마옵소서적장의집주장검을보니룡공의  
 조화라수년전의대장성이남정의셔러지더니이제검을  
 보나복두형대장성이칼빛을중추야일광주용인검은일신  
 슬가리와쓰니사롬은천신시오말은비룡이라늬는히당추  
 리스마룡이분로중야도스를사지적월대장부압푸요망호  
 도스놈이무삼잔말을용난다빛비물너쓰라진호이성각추  
 도미구의대환이잇실지라진중의드지말고소로호도망추  
 야쓰흐름을귀경터라이셔예마룡이좌수의삼천근철타를들  
 고스수의칼검을들고호통을치르며나와원슈를마자쓰소  
 더니일광주의쏘이셔두눈이강강추야정신이연난저라호  
 무중의소리나며검광이빛나며원수를치려추니장성검이  
 번듯호미마룡의조름치니철타들팔리마자셔의셔러지니  
 마룡이대정호야수수의잡은칼노공중의소호와버기를잡  
 디치니구척장검절고진칼리엇호치과쇄호야빈자로만나

문지라 제사구리 멧장인들적수로 당학존야 본진으로도 망  
고전홀지음의 벽석갓토 소리진동추며 창성검이 번듯추며  
마룡의 머리안기속의 나리지니 목은질너 본진의 더지고 몸  
은죄진의 더지며 왈의 바정초담아 밧비나와 죽기를 지촉추  
라네놈도이갓치죽이리라 추며 좌수로 회헛추되 공중의 소  
리만나표일신은안이보이니 적진이 더헛추야 혼불부신추  
더라 초담이 더로 추야 옥상을 치며 왈의 만군중의 총열이 잡  
을지업난야형사마밧기타고 심최장검센셔들며 진문밧기  
석나셔니 최인귀웅성추고나와 왈더장수아직참으소서 소  
장이 당추리다 추며 나난다시 드리가 워셔 왈적장유총열은  
어제미결호싸홍을 열단추자원수웅성추고 천사마상번듯  
올나 좌수의 신화경은 신장을 호령추고 우수의 장성검은 일  
월을 하롱추난지라 적진을 바라보고나난다시 드리가 혼신  
이일광되어가난줄을 모를네라 일귀를마자싸와 반축이 못

후야 처장성검이 번듯 후며 일귀의 어리를 배쳐 칼뚫어  
 들고 본진으로 도라와 처천자전의 밧쳐월이 거시최일귀머  
 리적살후손잇가 천자일귀의 목을 보고 뒤분후사도미수의  
 슬며 노고점 이슬리면 처원수를 치사왈진이 불명후야이  
 놈의 말을 듣고 검의 부침을 문외출송후샷더니 이놈이 나를  
 속여말이던 경의 보너쓰니 이젠은 설치후고경의 손혜노지  
 권뒤할부뎡양부족이라 백골이진되야도그은혜를다갑  
 푸리황터후손어더가고이놈고기 맛볼후르로난가원수  
 의손을 잡고 바번이나치사후니 원수더욱감축후야고두사  
 리후고군중으로 물너나오니 중군조정만이 전거수물충양  
 치못후야 뒤후의 너러비비치사후며 길기더라이셔호담이  
 일귀죽스물보고분심이 충창후야벽역맛토소리를 쳐동갓  
 지르고장창뒤검다잡아 쥐고 전장소백볼을 조소와부여  
 처며육년육갑을베푸러좌우신장승위후고둔갑장신후야



변화를부쳐두고호통을크게질녀원슈를불너왈충열아가  
지말고네목을맛비남산과라원슈호담이나소물보고던치  
고야용성고나올제천자원슈를당부왈호담은일귀마룡  
의유산이라천신의법을비외만부당지역이잇고변화불  
착하니과별이조심과라원슈크게웃고진전의나셔호담을  
망견고니신장이심여최이요면목이승장고며황금투고의  
녹포순갑의조화를부쳐난던천상의성의정신을충충의갈  
마쁘니살던명장이요역적될만호지라원슈기승을가다듬  
고신화경을잠간피어익성정신을외진제고장성검을나  
시다가성치칠난제고변화의은신고호통을크게고며  
호담을불너왈네놈은명나라정종옥의자적정호담이안이  
냐세던로명나라복을며고그인군을엄기다가무어시부족  
고야충신을다죽이고부모국을치라고니비단천하사롬별  
안이라지고귀신덜도너를잡아황제전의드리고자할거스

너 너 갓토 만고 여적 이 살 기를 바릴 손야 네놈을 싣금호야 권  
후죄목 무른 후의 네의 살을 포육혀쳐 종묘의 제사호고 그나  
문고기는 바다스 가수리 부친충호당의 석천제를 지너리카  
밧비나와나를 보라 초담이분호호야 승성출마나 오거 날원  
수호담을 마자 싣을 싣칼노치 거디면 반흔의 죽을 거시로디  
살이 고잡고 자호야 장성검노피들어 청호담을 치랴 더너호  
담은 간더업고 편호체순이러나 여원수의 장성검의 검광이  
업셔지고 페엇던 칼이 도로 살리거늘 원수더 병호야 급피불  
너와 신화경을 밧비페여 싣편을 외호후의 장성검을 세번치  
며 풍박을 밧비불너 체순을 세러바리고 안순풍이지 조화를  
부쳐적 징을 싣피보나 호담이 변신호야 체순의 씨이여 싣쳐  
장검번디기며 원수를 거늘 원수 그제야 씨맛고 왈 호담  
은 천신이라 산치로 잡부려호다가는 도로여 환을 당호리라  
호고 호호려나갈 제진전의 안지자속호야 장성검이 번키되

야공중의 빛나며 초담을 차라 하되 초담의 몸은 난종시갈리  
가지기갈들 못하거늘 적신을 행하야 뒤치로 드리진 증을 헤  
칠듯 하니 초담이 원수를 차라 자부려 하고 급피회마차의 번  
기언듯 하며 초담의 탄말리다 하거러 지거늘 급피칼을 드  
러 초담의 목을 치니 목은 맛지 안이 하고 트고 만져지니 적  
진의 초담의 투고 썬여 지물 보고 디경하야 급피침을 처거  
무소의 초담이 기운의 쇠진하야 거의 죽게 되야 세니 정을 처  
거두미본진의 도라와 정신을 노코 과음을 주심지 못하거늘  
좌우구름니 권우정신을 차려 안지며 왈선생이엇지알고 소  
장을 불너 난잇가 도사왈적장의 칼뚫티장군의 투고 썬여 지  
기로만 분위티 하야 불너 노라 초담이 디경하야 머리를 만져  
보니 파연투고엿난지라 더욱 놀너 왈적장은 일전천신이요  
사름은 안이로다 십년을 공부하야 사름은 천이와 귀신도 총  
양치 못하난 법이 만하디니 마룻파취 일귀 죽스물 초심하야

심년비운법을오날모도다베푸러좌장을잡부려하더니  
잡피는치르이괴운이최전하야거의죽게되어더니천형으  
로천성의심을입어목심이살아보나천만가지로일각하되  
심으로난잡을수업스니천성은집피심과공습소셔도사이  
말을듯고간담이천을중하이유치성과다가군중의천령하  
야진문을구치닷고초말을불너일처장을잡부려홀진티임  
력으로난잡지못홀거스니군장피게를모와여차々하야  
사마적장을유인하야진중의들거디면케비록천신이라도  
피홀질이업스리라초담이디히하야도사의말디로약속을  
정제후고슈일을지낸후의몹주를맛초오고진문의나셔며  
원슈를불너왈네초맛헐피만밋고우리를뒤릭하니후심이  
가외로다셀이나와자음을결단하라이셔의원슈의괴양々  
하야천전의형형타가부르난소리를듯고웅성출망하야일  
합이못하야거의잡게되야셔니적진이또초정을치거두거

늘공<>축부<야바로적진현봉을헛쳐날여들제장더의셔  
복소리나머난데업난안기사면의가득<고적장이간더업  
고음풍이소<>츠며호설이분<>호디지척을몰네라가려  
츠다유츄열이적장외여셔저홍정의드러쓰니명지경과이  
라원슈더정<야신화경을폐여노코등갑장신<야일신을  
감초소고안순법을베푸러져진증을살펴보니토골을집피  
파고그가온디장창검극은삼셔갓치비러쓰며사척신장이  
나열<야독호안키모진사척사면으로썩리면셔홍성소리  
크게질너홍보<라<난소리천지진동<노지라원슈그제  
야간게이셔진출알고신화경을다시폐영육경속감을베푸  
러신장을호령<며풍익을받비불너운무를쓰러바리니멍  
낭춘청천비일<광조를히롱<고장성검은번기되야적진  
중이요란할제적진을살펴보니무슈호군졸이며진중의모  
든복병들너쓰셔비안침의에위난디장더의셔복을치며군

사를지촉커늘원슈분노하야일팔주를다시만저송인밧을  
다사리고천사마를치질하야좌우진중호통하며좌측은돌  
횡합할제호통소리치너난고디번기불리이러나며번가불  
이러나난고디뇌성벽역진동하니군사장수녀실일코모든  
장슈귀가먹고눈이어두어제군사를제모론다쳐로발피부  
주찰제변화조타장성검은동천의번듯하며호적의씨러지  
고셔천의번듯하야천조군사다죽으니추풍낙엽불안하며  
무릉도원홍유수난흐르난이피물이라천봉중군다헤치고  
적진장디말여드니정호담이칼을들고덕상의섯거늘호통  
소리크게하고장성검을잡피들어디칼의베혀들 초군의  
사여드니이셔황후티주적진의잡피가쳐토골족의소리하  
야추난말리거그가는저장수는형여명나라장수거든우리  
고부살여주소원수분의등々하야적진의횡횡타가살훈소  
리나며천사아그곳질히총거늘검피가보고말게나려알소

장은 동성 문너거후 단유 주부 아담 충열의 손터니 아비 원슈  
갑후라고 불원천리 달여와셔 정문 불을 초갈의 버치고 그 후  
의 최일귀나 룡을 잡고 호담의 목을 베히려 이 곳되와 사오니  
소장과 혼의 본진스로 가사이다 황후티 후이 말흔 들트고 도골  
박기나와 원슈의 손을 잡고 치사후야 왈 그 더일 정슈 주부의  
아달인가 어더가 장청후야 저런 명장되야 난가 그 더부친은  
이 더잇난소장군의 심을 입어 우리고 부살여 너여 소<sub>2</sub>백발  
이 너몸이 천자아달다 시보고 현<sub>2</sub>홍안 너에 나리 황제 낭군  
다 시 보게 후니 그 공노 그은 허은 티 산이 문어저서 평지가 되  
야 도이 질수 업고 천지가 변후야 백히 가 될지라도 이 질감 앙  
전의 업네 머리를 버히 신을 삼고 셔를 써서 창을 부다 백년 삼  
만육천일의 날 마닥이 고셔도 그 공노은 다 감 풀가 본진의 도  
라가 처너의 아달어셔 보시 원슈 비사후고 황티 후를 밧비 모  
셔 본진의 도라와 정초담의 목을 너여 천자전의 바치라고 칼

뜻티세여보니참동은간더업고허수아비목을버쳐왔난지  
라원슈분노츠야다시싸홍를로스더라이셔천자양진싸홍  
을귀경터니원슈적진의말셔드며사면의안이가득츠고적  
진복병이번이듯츠야빈틈업시들너쓰코고과홍형은천리  
진동츠고원슈의검광이보이지안이츠거늘천자더정질셔  
츠야발을구르며셔의슴더쳐통곡왈이제난죽거구나천칭  
으로충열을어머셔니이제난죽어쓰니불칙초이너팔자사  
려무엇츠리신령츠상황천후토는이런형상을살피사슈충  
열을살셔주소셔이리타실피우더니뜻بات적진충의안이  
업셔지며벽역갓탄소리나미장형검번키되야적진의만병  
을순식간의세러쳐무인지경되야난더일원디장이진문밖  
기나셔며황후티츠히를모시고본진으로도라오거늘천자와  
티자보션발노달셔드러천자는원슈손을잡고티자는티후  
의손을잡고초티어수러쳐결거온마음중양업셔수름결반



우심결반두가지로석기여쳐천자는옥시를목의결고항쳐  
는손의들고항복공라나오다가싯밖의충열을어더사라난  
말삼을충고항탄후난적진의잡퍼가토골속의갓치엿다가  
싯밖의원슈만나사라온말삼을충고군사털도질거위치하  
분々하더라이셔정충담이도사의씨를듯고적장을유인하  
야홈정의너혀셔너죽기난고사하고삼군의만병을초관의  
못지르고장대의달여드려충담의혼비부침위인을베히고  
충군을지치다가항티후를다려가난양을보고녁삼이려도  
사게드려가섯자오디충열은일정천신이라이제는백게무  
척이오니천성은엇지충오릿가도사던정망극하야아무리  
홀주를모로다가충씨를싱과하충담을불너왈적장슈충  
열은거々년전의연정의귀양간유심의아달이라하니이제  
급피군사를쳐촉하야유심을잡아다가진중의가두고죽이  
라하면제아무리충신이나인군만싱과하제아비를싱가

충열전下

九

지안이후라호담이말을듯고되히야군중의천령하되  
날군사십여명을조발하야유주부를살이나입하라분부  
하니라

**고절**이셔유주부가북방극초지신의누르고상하민위인이  
보잘거시업고남정의날이낫단말을듯고주야근심하며  
여천자죽을가염에하야동지장야질고진밤의촉불만도  
케고촉슈활명천이갑동하사우리천자살일진디너아달출  
열이사려하든남경을구완하고제아비원슈를감게하소서  
이러타시형성을드리더니뜻밖의초세군사달여드려유주  
부를자바너여수리우의놈피실고불원천리지촉커늘공주  
부정신업시인사를노왔다가계우인사를차려성과하되이  
계는하릴업시죽나또다우리천자송천하야스면날자바소  
리기만무하다일청호담이역적되야천자를죽이고날도  
또호죽이라고이지경이되야꾸나천천일월도무심하고형

산신령도 못밋것다네아달충열이도정영이죽어쉬나사라  
쓰면어더가쳐아비쉴슈못좁난가이려타시실피수니군사  
덜도낙누하더라여러날만의적진충의득달추니이셔청호  
담이용상의놈피안자골용포를청이입고빅판이시위하야  
유심을차바다가게하의업지르고달너셔하난말라그덕마  
암이하 고집추괴로만리연경의수령을고상하니너마음  
이불안호지라이제는짐이천자되어빅판을유나려더니그  
뒤아달이아직미거하야천위를모르고죽은명제를살이라  
고우리군사를침노하니죄상을논지천더진직죽일거시로  
덕그덕를생각하야아직살여두어혀니종시홍복지안이하  
기로그덕를다려다가자식의게편지나하야부자흠의만나  
나를도으면고판덕작은원너로출거스니부더시양치말나  
유주부이말을듯고분심이팅장하야농을부름쓰고씩골셔  
안지며왈네이놈청호담아천지도무심잔코실업도두렵지

충열전下

안이하난야나는자식도업고자식이설혹잇손들우리천자  
를모시고너갓토역적놈을죽이라하난너그아비무삼일노  
성군를쳐바리고역적을도으라하너자식은시로이광던  
초천지간의삼척동자도내고기를먹고자하나나하물며너  
아달은속황이점지하사남경을도으라하너쓰니만고역적  
너갓도놈을섬길듯하야이려타시공최하머노의등하하거  
늘초남이던로하야유심을자바너여군중의베히라하너젓  
티잇던군사별예갓치달서드려검극을번덕이며유주부를  
자바너니도사초담을말여왈그던엇지경현이아난다유심  
의상을보니당덕왕후의상이너천명의워연견늘글출가망  
잇슬손야만일죽여셔가는던환이목천의잇슬거스너분심  
을참스소서초담이분기를이기지못하야성천도라오지못  
호되로다시귀양보내고거짓유심의편지를만드려무사로  
하여금명진중의쓰와원슈를보게하나이셔원슈장디의안

가려가난디업난살호나히진족의너러지거늘급피주이다  
가살을보니살뒀뒤편지호장달려새늘슬너보니그편지의  
호여쓰되연경의적거호유주부는불회차출열의게일장서  
간부치나니급피바다세여보라호호라네의부모년광이반  
이너머일점혈육업서혀니남악산의산제호고너를듯게야  
나하영화를보라혀너의팔차기박호야천자게득죄호고  
말리연경의귀양가쳐사성이관두호되아비를찾지안이호  
난구나부모를상봉호문천류의당년거늘네의몸만장성호  
야망호나라섬그랴고시나라를친노호니시천자네아바를  
자바나가너갓탄못실자식두엇다호시고도민우의솔여노  
곤죽이라호니이안이망극호야세상사름이자식나호면조  
타호난말리자식의심을입어영화를보난고로성남호면조  
타호난디나난무삼죄로영화보피는시로이소박발피려  
은목의창검이웬일이며피골상연늘근수족수리소를어이

츠리네가일정너의자식이거든급피항복츠야우리부자상  
봉츠야만중늑을먹게츠라만일너말을듯지안의츠면죽은  
혼이라도자식이라안의츠고모젠귀신이되야네몸을히츠  
리라홀말리무궁츠되명지경과츠야황츠츠기로운치노라  
츠야셔라원슈이편지를보고정신이아득츠야충창이막겨  
인사를모로더너제우진정츠고천자게드러가그편지를드  
리며이글을보습소서퍼츠천일의소신아비의필적을보아  
쓸거스니이게정영아비의필척이오넷가천자와티자그편  
지를다본후의박장더소츠머원슈를위로왈그더의부친이  
죽은지오린지라혼익이살어드리도글시를보니천후불견  
필적이라설령사라쓸지라도이리말을어이홀가장군은염  
예말고정흔당을사로잡아그곡천을부러보면너말을졸타  
츠리라원슈물너나와싱과츠디천일강승상을만날셔의명  
나슈회사정의부친이셔적죽은표적을부쳐쓰너부친이죽

기난적실촌지라이제엇지적진의드리가편지를부쳐브리  
요그러나너의마음심안하다적진을척과하고호담을사로  
잡아이일을회득하리라하고일망주를다시시키고황용수를  
거사리고봉의눈을부름으며용인감을졸나입고딘장검을  
놈피들며신화경을손의틀고천사마를빛비모라진천의나  
서며호담을크게불너살네이놈과사호쌍을너어나를창복  
고려하거니와너엇지모를손야빛비나와죽어보라호담이  
황검봉야도성의드러가고천봉을머무르며군문을구지맛  
고나지안이하거늘원수승축부하야적진의달여드러장  
성검이번듯하며적진천봉씨가업시다죽이고도성의달  
여드나사디문이맛쳐거늘충홍소리호머리에장성검을번  
덕이며철편으로문을치니문이편과해하야독시원철초  
풍의벽철갓치충근이더라순식간의달여드러릴문밖의진  
친군사디갈의문지르고정호담을빛비차자결문안의드러

충열전下

七

말시이셔호담이원슈도성의든단말을듯고황<급>복문  
으로도망<하>야도사를다리고호산더의놈피올나피란<하>난  
지라원슈도성의드러호담의가편을잡고노제의삼족을다  
자바본진으로보내고만조벽관을호령<하>야옥영글<하>초와  
본진의도라가천잔를모쳐환궁<하>고호담의가솔을<하>치  
문죄후의씨업시베히고조정만을신척<하>야본정글<하>키오  
고원슈는천일사년<하>첩터를가보니승장호루거<하>빈터만  
나마떠라실훈마음<하>진정<하>고렐문을<하>청<하>야도라<하>쳐너부모  
성<하>과충양<하>엄<하>쳐<하>나<하>는<하>질<하>리<하>강<하>강<하>야<하>참<하>을<하>지<하>리<하>업<하>난<하>지<하>라<하>고  
주버<하>쳐<하>셔<하>의<하>늦<하>코<하>가<하>삼<하>을<하>두<하>다<하>리<하>며<하>더<하>성<하>통<하>공<하>나<하>말<하>리<하>옛<하>날  
은<하>의<하>자<하>도<하>나<하>라<하>이<하>망<하>고<하>호<하>추<하>의<하>옛<하>터를<하>지<하>너<하>다<하>가<하>궁<하>실<하>리<하>문<하>어<하>져  
셔<하>씩<하>디<하>밧<하>치<하>되<하>물<하>보<하>고<하>뎡<하>수가<하>를<하>실<하>피<하>지<하>여<하>고<하>정<하>을<하>성<하>과<하>하<하>더  
너<하>이<하>제<하>유<하>충<하>열<하>은<하>물<하>고<하>온<하>더<하>부<하>모<하>일<하>코<하>도<하>로<하>의<하>기<하>결<하>타<하>가<하>이<하>너  
몸<하>이<하>장<하>성<하>하<하>야<하>사<하>던<하>디<하>를<하>다<하>시<하>보<하>니<하>장<하>부<하>호<하>심<하>철<하>노<하>난<하>다<하>우<하>리



부모난어디가시고이런줄을로도시난가상천벼히고단말  
을고지안이드러셔니이년일을생각하니비년인성초로자  
고만세광음슈주로도부귀영화본다하고부더사름경이말  
고제복잇셔잡안다고일가친친팔세말소고진감년흥진비  
너는고금의상사로세양지감은지되고음지가양지되난주  
름게뒤라셔알어보리권세조타귀초다고친만련을밋지마  
소이러타시낙누고도성의드러오니만조백판시위중의  
출신은다죽고나마잇난지는정호담의동유라났기치자버  
니역죄지경증하야장안시의치참하고청초담을차지랴고  
군중의결령하야차지나라의셔청초담이초산디의셔도스  
다려의논할셔도스호쇠를생각하야왈이제노백게무척이  
라여간나문군사로피문지여남단파셔번과호국의보너여  
피친훈말을하고구완병을청하야호번씨운후의사불여의  
하면목심만도망하야호일을보미엇더호호초담이디히하

야권문을지어급피오국의보너나라이셔오국군왕이과가  
장수르르보너여승전호기를족야지달너티니싯밖기픽군호  
소식이왔거늘과분로호아셔천삼십육도군장이며가달  
토번왕과호국되왕이깃명팔십만과웅장천여원이며신과  
호도스름좌우의안치고진세를살피며과군왕등은중군  
이되야천하명장을관퇴호야셔봉을쳐호후의힘공을저촉  
호야달어드니그거동웅장호문일구난설이라이셔정호담  
이청병호물보고괴운이떨쳐호야셔명을비저어군중의  
동자호고도사와호고호왕게셔신호고전호수말을낫호치  
알외니호왕등이호말을듣고정문걸이며마룡죽어셔말을  
듣고간담이신을호야집전술마음이업서나호맛분심을못  
이긔어정호담과동심호야호산디예진을치고격셔를남경  
으로보너나라이셔원슈는도청의들고조정만은금산셔호  
의슈전호엇더니싯밖기조정만이장게를졸이기를급피리

탁하야보니 하어쓰되오국군왕더리위군호만말흐르듯요가  
중군이되야오난중의정훈담파속판도사출역하어쳐서  
를보너어쓰나원슈늘유피와방적하소서하엇기늘원슈듯  
고고게우어왈정문결막랑은천중명장이라고도너잘사터죽  
여거든하물며오국병초야제비록승천입지하난놈이선봉  
이되어쓰나호갓장성검의피만유칠성름이라황상은염예  
마옵시고소장의칼사터좌장의머려려지난귀경이나하  
옵소서직시급주를갓초오고본진의도라와군사를신치하  
야함오를과별이단속하고적진의글을보너어쓰함을도  
올게이셔정초남이오국군왕전의호쇄를르려왈도사의제  
조는소장이십년공부하야변화무공하오니구척장권찰머  
리에갑산도문어지고하하도뒤딛더니명진도원슈가차츰열  
은천산이요사로운안이라이제더왕이억만병을거나라와  
쓰나충열잡기는사로이점전출찰가업사오니만일쓰초다

가는우라군사찌가업고디왕의중호목심보존중기어려움을  
거스니소날밤삼경의군사를날나금산성을치거디면제승  
당구출차로올거시니그녀를다소장은도성의드러가천자  
를향보맛고옥시를아스브면제비록천신인들제인군죽어  
난더무삼면목으로삿올잇가그씨맛당호오니디왕의천분  
은엇더하시닛가호왕이디히하야호담으로디장삼고천극  
호으로선봉을삼고약속을집제출제군중의귀치를돌고너모  
성으로갈득이호니원주산호의잇다가적세를담지호고도  
성의드리오니라이밤삼경의호담이선봉장극호를불너군  
사십만병을주어금산성을치라호니극호이청명호고금산  
성의달여드러호동일성의십만병을나열호야군문을밧비  
헛켜군중의드러좌우를돌고너군사를지켜드러가니불  
의예환을만나왔스급스호지라원수도성의셔적세를담지  
호더니호군사보호되직금도적이금산성의드리군사를다

죽이고 증군상차자형형하 원슈는급피와구완호소쳐원  
 슈디경호의금산성심니늘이나날다시달여드러벽역갓치  
 소리호며전진을헛쳐증군의느리가조침만을구완하야장  
 디의안치고필마단창으로쳐와갓치달여드러장성검지년  
 고디천극호의머리를베치고그사마맞난고디십만군병이  
 팔공산초목이구시월만다시순식간의업쳐지니원수본  
 진의도라와칼뿔을보니청혼다은어디가고전후불견되놈  
 이라**이**세조담의원슈를치우기성병만가리역급피도성의  
 드니성중의군사업고천자난의키의심만밋고잠을침피드  
 려셔가뚝박고천병만마성문을썩치고월년의드러가좁성  
 하년말리의바명제야어디로간다팔낭가비라비상천하며  
 뒤치기라셔스로들다네놈의속셔아시랴고하더니이제난  
 어디로갈다빛비나와항복하라하난소리공권이문어지며  
 혼백이상천하난지라명제녀실일코홍상의셔러적속시를

충렬전

五

품의 품고 말한 필자 비드고 업더 지며 잡바 지며 북문으로도  
말하야 변수가 의다 크르니 호담이 쥬니의 달여 드러 천자를  
차진 직과 단업고 할 후티 후티 차도 망하야 나 오거늘 호령하  
고 달여 드러 할 후를 잡아 쥬문의 나와 호왕의 게맛기 고 북문  
의 나셔 니이 셔 천자 변수가 의도 망저늘 호담이 더 허하야 천  
동갓 탄소리 하고 순식간의 달여 드러 구쳐 잠 겹 번듯 하며 천  
자의 안진 말리 비사 장의 새 꾸러 지거늘 천자를 버너 여다  
하의 업지르고 설리 갓 탄 칼노동 천만을 씨더 지며 호동하 나  
말리 이바느르라 하날리 날갓 단 영웅은 너 실제는 남경의 천  
자시귀미라 네엇지 천자를 바킬손야 네 호놈을 잡으라 고식  
년을 공부하야 변화무공하니 네엇지 순종치안이 하고 조고  
만 호충영을 어더 너 군사를 쥬노하니 네의 죄를 논지 천더이  
계박비 죽일 거서로 디옥셔 드리 고 향셔를 버셔 올이면 죽  
이지 안이 하련이 와그렸치 안이 하면 네놈의 노모 처자를 호

관의죽이리라 천자 후릴업서 후 난말리항셔를 써차 손들지  
필이업다 후시너 호담이분노 후 야 창검을 번덕이며 왈용포  
를세고 손사락을 써여 항셔를 써지 못홀가 천자 용포를세고  
손가락을 써물여 후니 참마 못 놀치 음의 황천인들 무심 후 리  
이셔 원슈금산성의 적진입만 병을 호찰의 못지르고 바로 호  
산디의 득달 후 야 적진병을 호셔 업시 호몰코자 천 후 더니 뜻  
박귀원식이 히미 후 며 난디어 보비 방울의 원슈면상 니려지  
거늘 원슈고치 후 야 말을 잠간 머무르고 천거를 살피보너도  
셔의살피가 득 후 고 천자의 사미성이셔 러져 변슈가의 밋쳐  
거늘 디경 후 야 말을 후드며 날이 게웬변이냐 곱 주장 겸 갖 초  
오고 천사 마상 밧비를 나사 호편을 돕피드러 말 석을 처질 후  
며 말 다려 전설와 르 천사 마야 네의 용병 두어셔 가이런셔의 안  
이 보고 어디 버리요 지 금천 자도 좌의게 잠피여 명지경 각이  
라 순석간의 득달 후 야 천자를 후 원 후 라 천사 마는 본디 천상

으셔 타고 온 미륵이라 치적 을 안 이고 고 정 설 만 후 되 비 룡 의  
조화라 계 가 난 뒤 로 두 어 돈 피 식 간의 멧 철 이 을 날 줄 모 로 난  
뒤 후 물 마 제 임 자 급 호 마 로 심 설 후 고 산 호 처 로 치 설 후 니 엇  
지 안 이 굽 피 갈 가 눈 호 번 심 작 이 며 황 성 밧 기 열 는 지 너 여 변  
슈 가 의 다 크 르 니 이 셔 천 자 는 비 사 장 의 업 더 지 고 호 담 은 갈  
을 들 고 천 자 를 차 님 후 늘 권 가 이 셔 를 당 후 미 평 상 의 잇 난  
괴 려 파 일 쇠 의 질 은 호 통 을 진 려 후 여 다 지 르 니 천 사 마 도 평  
심 응 민 이 셔 예 다 부 리 니 변 화 조 흔 장 성 검 도 삼 심 삼 천 어 린  
조 화 이 셔 예 다 부 리 고 원 슈 맛 난 압 푸 귀 신 인 들 안 이 을 며 강  
산 도 문 어 지 고 후 후 도 뒤 고 난 듯 호 백 인 들 안 이 을 이 요 호 신  
이 불 빛 되 야 벽 역 갖 치 소 리 후 며 월 이 높 청 호 담 아 우 리 천 자  
치 치 말 고 니 의 잘 슬 네 바 드 라 후 난 소 리 의 나 난 짐 섰 도 셔 러  
지 고 감 신 하 비 녁 심 이 러 응 나 무 치 못 후 기 든 청 호 담 의 호 백 인  
들 안 이 가 며 간 담 이 션 호 호 아 호 통 소 리 지 너 난 고 뒤 두 눈 이



강잡하고 두 귀가 먹어 아타스면 말들너 타고도 망하야 가라  
다가 현산마췌구러 저비사장의셔러치니 창점을잡나 들요  
원슈를바우가늘구만 청천구름속의 번기 잘리 언듯하며 호  
담의 두 팔목이 마하의 나려지며 장성검엎듯하며 호담의 장  
창더결부셔지니 원슈달여드려 호담의 목을 산치로 차바들  
고 말게니려 친자압푸복지하니 이셔 친자비사장의업더져  
셔반성반사귀절하야 누엇거늘 원슈분자바안치고 청신을  
진정후의보지주왈소장이도 죄을흐물고 호담을사로잡  
아말게달고왔난이다 친자황망중의 원슈란말을듣고 벌떡  
이러안져보니 원슈복지하야 쳐늘달여드려 복을안고네가  
일정츠정연안아 청산말을어키가고네가엇지예왔난야나는  
죽게되야셔니네가와셔살이모다 원슈전후수말을아르후  
의호담의머리를푸러손의가마들고도성의드러오나 이셔  
오국군압이성중의드러다가 소담이사로잡피압말을듣고

황겁하야도성의드러성중보화일등미식을달취하고화추  
와티후와티자를사로잡여슈리수의놈피실코본국으로드  
러가고업난지라천자원슈를분들고딘성동곡알이몸이하  
날개득죄하야나라이망제되아석간충신그디를어더회복  
되게되야브나부모처자를되놈의게보니고나혼자사라무  
엇츠리천하를그디의게전하나니그리알나과인은이계죽  
어혼백이나호국의드러가모침을만나보면구천의드러가  
도여한이업스리라하고컬니비화담의생겨죽고겨하건늘  
일슈부쓰려용상의안치고엇자오티소신이충성이부족하  
야이지경이되여브나이셔를량하야신자도리에호국을그  
져두오릿가소신이적조업사오나호국의드러가호종을습  
물종효황티후를편이모셔도라오리이다천자원슈손을잡  
고나누하야부탁하되경이충성을다하야호국을취멸하코  
마인의그모와척자를다시보게하면살을베쳐도곱지안이

후리소원슈비사후고나와정호담을알니게후의업지리고  
좌우나졸호령후야원갓형일갓초소고천후죄목을낫치  
무러왈이놈드르라네자충신황제라후고날다려천의를모  
론다후더니엇지두팔리업쉬니게잡퍼왓난야호담이참피  
무인이라네자충심년공부후야천자를도모호다후더니엇  
터호놈의게공부후야역적이되야난야호담이엇자오덕소  
인이불형후야도소놈의말을듯고이지경이되어쓰니아될  
말삼업난이다도소놈은어덕갓난고소인이변슈가의갓을  
셔의호국의드러갓을듯후나니다원슈왈네놈은날과불공  
덕천지슈라진직죽일거시로더너부친의존망을알고자후  
나니바론더로아되라호담이다시엇자오덕소인이죄중후  
야도소의말을듯고정언주부를무암후야영의귀양갓삽  
더니슈일천의다시잡아다가항복을밧고쳐후되종시듯지  
안이후난고로다시호국포관이라후남으로해양갓사오너

그간심사는 모로난이다 원슈이 말을 듣고 통곡할 감히 주난  
죽어 난야 살이 난야 호담이 셋자오더 감승상도 무흠호야 옥  
문만으 로 귀양호고 그 짐가솔을 다 잡아오더니 중노의야 간  
도쥬호야 영농선청수의선저죽다호더니 다원슈모친이 회  
수의봉변일리호담의소원출모로고강낭차죽은일만절분  
호야호담을디갈의베이고자호되부친을만난추의죽이리  
라호고삼목을갓초와절박호야전옥의가두고집주장검을  
갓초와천자게호저호고나오려호니천자게호의나려손을  
잡고낙누왈짐의수족을만리타국의보너고마음이엇디홀  
고부더충성을다호야모친과자식을살여수이도라오쇼만  
일그간의환이잇스면위로호야사라날가십니박의전송호  
며만번당부호니원슈청명호고필마연창으로만리타국의  
드러갈제이셔호왕이드리가며후환이잇는가호야과도과  
관의형관호야호국드러오난질의인가를업세우고물마닥

빈를어체어인적을통치못하거야난지라원수전장의고  
상하머음을전폐호나리만호중의부친의소식을알고져  
하야친척이불안하되차의호국수만리를주점업시지너오  
니괴운이반관하야난지라형역이노관하야유주의득달들  
여자사를잡아너여문죄왈네이놈체되로국녹지신으로국  
가불안하되네몸만생각하거국사를몰보지안이하며또호  
정하담의말을듣고유주부를네플의귀양하엿다하더니어  
뒤게시요자사황겁하야죄왈소인도국녹지신으로엿지  
무심하릿가만은호병이남정의가난질외소인공을의달여  
드리군사와양식을탈취하거소인을죽이라하거로소인이  
도망하야목심만사라쓰나본디죄조업고적수단신이라흔  
발을몰나다만국가엿지될즈를모로더니수일전의소식을  
드리본져호병이승전하야황후리후티자를사로잡아가노  
라하거여황하망국하되차의장군이와져쓰나황송하호나

성명은 누시며 무삼일 노유주부를 찾나잇가 원슈비감하야  
왈나는 이고 을저거하신유주부아달일너니부모원수감푸  
라고적진의드러가천자를구압하고정호담최일권을초찰  
의베히고오국정병을일시위문지르고천자를모셔환공하  
얏더니뜻بات고오국왕이드러와나를소겨도성을엄살하고  
황후를사로잡아갓난고로부적을줍몰고황후를모셔오  
라고가난질의드렸노라자사이말을듯고게하의나려비  
치사하고주육을만이너디잡하고심너박과전송하니라  
원슈유주를하나호국의다르니풍설은분고고도로는  
험악하야인적이업난차라

각현이서호왕이십만병을거나려남경의가다가호담이사  
로잡피여단말을듯고도성외드러가황후티후티찰를사로  
잡고성중보좌와일등미식을탈취하야본국으로도라승전  
곡을을이며잔치를비설고고수르길민초의황후티후티자

를잡아너여게하의업치리고나졸이좌우의느리셔<검극  
을버려난디후왕이인검으로난간을치며티자를초령하야  
왕네이놈전일은네아비심을밋고범남이동궁이라하야가  
니와이세는과인이하날게명을바다천자를항보밧고네조  
모를사로잡아와브니난승천자나박괴또잇난야네밧미  
항복하야나를도으면죽이지안이하려이와그리치안이하  
면너의모자를북희상의더지리라아랫타초령하니군사의  
엄장중은영왕국이갓가온듯호왕의엄호위풍단산밧호쟁  
을치난듯황후티후정신이아득하야삼인이셔로목을안고  
게하의업디겨셔아무리홀졸모로더니이셔티자의년이십  
삼세라호왕을초령하야하난말리네이놈역전놈이호갓간  
포만밋고외람이남경을침노하야이지경이되야쓰나인감  
성심의황제를진료하야나를항복바다네신호를삼을손야  
군신지분의를돈지전디황제는만민지부요황후는만민지

모라 너는 만고역적놈이라 하니 호와 이본 노후야 나 졸을 지  
족중 나 일시의 달여 드러 활 후티 후티 자를 잡어 너 여원 갓 형  
벌다 갓 초오고 수리우의 놈 피실고 동문디 도상의 나 올척의  
귀치 겸극은 삼셔 갓치 세워 난디 축융디 창놈 피안 자 지식을  
상급 하고 겁술을 허롱 흘케 황 후티 후티 차 수리의 나 려 황 후  
는 티 후의 몸을 안고 티 자는 활 후의 몸을 안고 삼인이 호몸 되  
여 비사 장너 룬들의 업더 쳐셔 그를 허부미 방성 동곡 한 말리  
전성의 무삼죄로 비발 노후 한 소부어 린 손자 압셔 우고 되  
놈의 게 잡혀와셔 호칼 쫓터 다 죽으니 북방 천리 멀고 먼 길의  
무주고 혼되 단 말 가 피물 생연이 너 몸은 되놈의 게 자식 일고  
청춘 소부너 메 나리 되놈의 게 남근 일 초혈 단 신 너 손자 되  
놈의 게 아비 일어 만 리 호국 힘춘셔의 누보라고 예 왔다 가 세  
몸이 호몸 되야 자 리 손의 죽게 되니 천 만 련을 지 너 간 들이 리  
너 술 다 시 불 가 땅 디 호 처 기 간의 흥 악 호 불 처 춘 게 수 리 셔



이팔자로세도적의개황성이코우리아달정호담을피호야  
북문으로도망터니죽엇간가살어난가추비이나동여셔  
늘근어미죽난주르귀신이나알언만은참망호구름오의사  
롬소리뽕이로다슈충열은어디가고날살이죽로난간호  
심츄다형산신령이선호니아달을남경의집지호야용상우  
의안칠척의그어미는무삼죄로이지경이되며 만고영

웅슈충열을뒤며국의집지출제엇던인근성의과고너의손  
자죽난주르로로난야비난이다비단이다형산신령은디명  
국황성의급피가우리슈원슈를차차너말을견호되디명국  
황티후불상호며나리와어리손자목안고의차참검나열호  
며빅포장막안의자코이버렸난디세몸을호티노코그음일  
오시만지니면무죄호세모숨이참검엇달여쁘니호셔속  
친호여주오이러타시통프호니피갓탄저호물은소상감겨  
문비가반죽의셔리난듯기련호다만승황후시년이심팔

세라옥빈홍안고은얼플월티화용귀호몸이여러날잠못자  
고굴머쓰니형용이초최초중의호왕이잠아닐제충악호군  
사놈이억지로살너너니유혈이만면고의삼이남누고니  
침천의발근달이흐운속의잠겨난듯독수의충연회가흑비  
를머금은듯가련고실핀경상참아보지못출네라이셔예  
총웃디잠군사를저축야적인을잠아다가괴셔밧티업지  
리고자귀을호령야일시의척참라하니자괴더리침명  
고고홍포남디허리어셔고비슈권을번덕이며좌우의갈나  
셔, 힘영호다고홍소리침천의진동고니천지영지무심출  
가이선유원슈초국지간의득달중야상남들의밧비가니호  
국선우디가구름속의보이거늘찬감박설갈티밧티천사마  
르물머이그감수취여났싯디나사고무인적박호디반디업  
난일엽포주갑상의셔오더니일원천녀천창박기나아와셔  
원슈의게예고금낭을살너파실두기를주며월형역이고

고 호오니 이과실 호기를 자시고 호이는 두엇다가 일후의 바  
러이와 지금 황후덕후덕사 호국의 잠며가셔 동문다 도상의  
외가 형별과 호오고 자괴을 저축호야 김술을 희롱호니 황후  
의 귀 호명이 경과잇난지라 장군은 엇지 갑호물모로고 밤비  
가지안이 호난잇가 두어말이로더니 범호중유가난지라 유  
수디경호야 그과실 호기며고 천귀를 살피보니 덕자의 장성  
이셔러질듯호고 자미성이 갈뚝터달여 새늘디경호야 황웅  
수를 거사리고 붓의 농을 부름쓰고 일팡 주용인 집을 단호이  
졸나미고 장성 검은 폐여들고 천사마를 치질호야 나난나시  
드러가니 동문 밧십이사장의 군사가 득호야 새늘말다 귀를  
급피여러 조총을 잡관니여디 호고 그를 호노호니 수리가 탄  
호성소리 청천 바일 진동 호듯 호왕을 불러워난 말리여 바라  
호왕 농아 황후덕후덕치말나 이셔 자외이 비수를 번덕이며  
터자목을 치랴 호재난디 입난 벽역소리 청천의 셔리지며 일

원디장이제미갓치드러오니일진이황검중야주려  
던차의천사마는호변삼작이며동문디도상의장성검이불  
빛되야십니사장널흔들외오마디로사인군사씨업사다네  
이그청중의달셔드러질문을쳐치그문안의만조박판디찬  
의무지리그용상을쳐부시며호왕의머리푸러손의갈아쥐  
고동문디로의급피오니이저황후티후디자크의검망사  
티흔박이흐터쳐셔그결중야업더젓난지라원슈급피달여  
드러티자를부드러안치고황후티후를흔드러안치니호식  
경이지널후의계유인사를차리거닐원슈복지하야엿자오  
디청신을차리습소서디명국도원슈유충열이호왕을사로  
잡고자외과군사를출칼의다죽이고이고디왔난이다티차  
이말을듯고급피이러나황후의목을안고남경유충열이왔  
네청신을진려하야충열을다시보쇼이러라시부르지니  
황후티후그결하엿다가유충열이왔단말을듯고가삼을두

다리며벌터이리안자사면을바라보니군사는호나도업고  
일원디장압복복지후얏거날다시엿자오디소장은남경유  
총열이옴더니호왕을사로잡아이고디왔난이다화후이말  
을듣고좌달셔드러손을잡고후난말리그디일켰유원슈냐  
종천강후여종지출호가북방호지수만리를엇지알고와난  
가그디은덕갑풀진디빅플난망이라엇지다갑푸리요티자  
도만단치사후고친자존의를밧비우른디원수엿자오디소  
장이도적의게속이금산성의드러가온적적장전극호이십  
만병을거나려왔거늘준찰의다베혀고급피도라오다가친  
기를보온직환상이변수가의죽게되엿거늘급피달여가니  
환상은박사장의업터지고정호담은칼을드러환상을치라  
후거늘소장이달여드러정호담을사로잡아전속의가두고  
환상은편이모셔환공중신호의소장은디비디군을모신후  
의아부를차지려후고왔난이다삼인이빅비치사왕복망산

동국사기

의잇난부모회심하야다시본들이외어더반가오며감동의  
녀난형제야중의만나본들이두근더출손야이제도라가우  
리친자와원슈로더부러결의형제하야만세슈전토록셔나  
사지안이후며천후를반분하야동낙티평출가후노라티자  
호왕잡아오물보고원슈의칼을써쳐갓고호왕을업지리고  
왈네이놈아황후를진후하며나를항복바다네신후를삼고  
자후더니천천일설이반가거든인감심심인들후날로호할  
손야분심을참지못하야장엄검을뽑피드러호왕의머리를  
베쳐칼셔티베여들고호왕의간을너여낫치셔분후의성  
중의드러가약간나문군사다죽이고그중의군사오명을자  
바너여준마세필을구하야교자를갓초와황후티후티자를  
모시고호국옥셔와지도셔를가지고힘군출셔도로장을볼  
니왈포판을뭇고길을저촉하며부친을성과하야누무리비  
오듯하니실핀마음이그지못하야방성통공후난말리친자

는 날갓탄 신구 흐르듯 었다가 만리 호국의 죽게 되 부모 처자 다  
시만나 모 건이와 나난 포 판의 잇난 부친 죽 었난가 살 앓난가  
회수 경의 모친 일코 만리 북방의 부친 일코 능능 천 속의 안히  
이러 쓰니 사라 셔 무 잇하 미 죽어도 약 급 잔코 노로 여 약 귀가  
될지라 포 판을 여셔가며 우리 부친의 심사라라 보류하며  
실피우니 티 후와 티 자 원 슈의 손을 잡고 만단 위로 후야 길을  
지족 터니 녀러 날 만의 포 판을 득 달 초 디 이셔 은 북희 상 무인  
지라 사 무인 적 하고 다 만 들이 난이 희 상 풍 남 소리 스름의  
간장을 격 동 하고 소 실 훈 풍 원 청이 난 실 피우 러 외 의 수 심을  
돕 난 구 나 귀 신이 난 잠 초 디 슈 주 부의 혈 단 신 살 가 땅 이 천  
이 업 다 이 셔 유 주 부 도 처 의 게 잡 퍼 갖 다 가 항 북 지 안 이 초 다  
하 고 피 골 상 연 약 초 목 의 형 장 을 만 이 맛 고 북 희 상 무 인 지 에  
음 사 이 업 셔 쓰 니 지 갈 들 어 이 후 리 미 구 의 윤 명 하 게 되 여 셔  
니 이 셔 원 슈 순 식 간 의 달 여 드 러 보 니 토 골 를 집 피 과 고 혈 초

수목으로 사면을 들너서 고집 자리 초입 우의 문밖 기수 직 초  
군사 호명만 두어 심순구식으로 구먹 밥을 주나지라 이거 동  
을 보고 업더지며 트고 버셔 여의 노교사면 수목을 헤치고 토  
굴문밖 기복지촌야 옛자도 디명국 남경 동성문 서사 난 초  
열언도 책을 잡아 평난 초고 황후티 후티 차를 로셔 이리 왔난  
이다 이셔 유주부 귀운이 최진 초야 인사를 바리고 잠을 침피  
드리셔 니몽 중의 열푸시 드르니 초열이란 말을 드르미 친리  
박기셔 나난 듯 초야 꿈을 썬여 안지며 왈 내가 귀신인 야이셔  
은무인 지경이라 물귀신이 만 호고 지라 어이 알고 예와 난 야  
통곡 초야가 삼을 두다 리다가 기가 막 쳐다시 왈 네가 귀신인  
야스 례인 야 초열이 스라 왔나 니다 주부 귀신인 가의 심 초야  
초열이 차자 오기 노 친 만 리 사 박 괴라 진 언을 외오며 왈 너야  
달 초열은 회수의 죽어 쓰네가 일 쟁 초신인 야 혼 박 이라도  
반갑고 반 곱다 초열이 술여 왈 소자 회수의 죽게 되야 덕니 친



힘으로사라나서도적을잡몰고고천자를모셔환궁후고  
지금호국의가황후티후티자를모셔문밖의와난이다유주  
부이말을듣고이게웬말인야토골을두다리며네가일정충  
열인야충열이적실커든십년전의연령으로귀양온적의주  
던죽장도어더보자원슈옷을잡피벗고충삼차인죽도를살  
너너여두손의밖드리올이나나다주부일말을듣고토골문  
의업세여쳐손을너여바다보니소상반죽다섯마디황강죽  
누를화침으로식여쓰니구천의도라간들부자신표물을손  
야벌덕이러안켜말이게웬말인야충열이와우나죽도는보  
와쓰나너아날충열은가삼의더장성이박키고등의난삼티  
성이잇난이라원슈옷을버쳐셔의노교주부쳐티안지니주  
부가삼파등을살펴보니시벌갓토삼티성파더장성이두려  
시박켜난티금자로디명국도원슈라버섯후게식여새늘살  
각뛰여달여드러충열의목을안고살어더갓다이크운야후

날노셔러커난야셔의로소사난야우리천자살아게시며네  
의모친엇지후며만고역적정충담이우리집의불을노와너  
의모자적이라후다더너엇지살아나셔져디지장성후앗난  
야비가일정충열인야네가일정성학인야죽도보고표적보  
니충열일시분명후도정충담의화환만나회수증의죽엇거  
든만경창히너를물의칠세동이엇지살아부자상봉후단말  
가이러타시상극후다가괴절후니원슈더경후야형장을음  
피살너셔더주연실과를너셔주부를먹인후의슈족을만져  
정신을최싱게후니석경이지더여이러안지며정신을수십  
후나난더업난말근괴음이청천일월갓탄지라충열의손을  
잡고왈네무삼약을이더이러탄나를구후나야이셔황후티  
후주부회심후물보고급피드러가주부의송을잡고왈엇지  
저리귀호아달을너어만리타국의그더와우리를살여너여  
이고더셔로만나보게후난고주부보지주왈이게다황상의

덕퇴이로소이다이셔원슈황후티후티자를모시고호국의  
떠나양자강을견내갈케남경의장차사만소천츙적나라황  
주의달셔드러요고나올케이셔천자원슈를만리타국의보  
예바리고황성의드러올케이셔천자원슈를만리타국의보  
너고주야훈탄하며천칭으로황후티후티자를차자올가  
야축슈츠더니뜻박괴유원슈장계를올여거늘급피리탁  
야보나도원슈슈충열은호국의드러가초적을츙몰고황  
후티후티자를모시고오난질의포판의가주부를살여너  
흥기본국의드러오난이다츠얏거늘천자더히츠사십니  
기나와연접할제황후티후달여드러일변반기며일변설피  
우니그정상은차아보지못홀네라티자복지츠야옛자소  
초국의드러가호왕의게견피츠고동문디도상의거의죽  
되엇더니천칭으로원슈를만나사라난말을알외며포판의  
드러가주부살여온말삼을낫치주달츠니천자이말을듯

고충열의등을만지며왈옛날삼국시철의유만장삼인이다  
원결의축약더니과인도경으로더부러결의형제축리라축  
고백번치사축시키이셔주부복지주왈소신은연경의귀양  
갓던유심이옴더니자식의심을입어잔명을사라나셔퍼축  
를다시보오나만항이오나퍼축이러탕국사의근고축시되  
소신의충성이부족축야초국의갓치여삼피로고도치못축  
오나죄사무척이로소이다천자유주부란말들듯고보천발  
노뒤어나려주부의손을잡고왈이게웬말인가최소정의죽  
은졸만알어셔너엇지축야살아온가과신이불명축야역적  
놈의말들듯고무죄흔우리주부를만리연경의보너여쓰기  
닐을원망졸가모도다과인의불명흔타시로체그대의설골  
을보니죄중흔이너몸이무삼면목으로사죄홀가그대의게  
흔공덕을그품진디살을베쳐봉형축고천축를반분흔들엇  
지다그품가이러타시치사축고도성의드러오나이셔장안

만민이 미준군조정만이며 군사일시의 드러와 원수 말고 낫  
차치비사하고 남녀노소 업시 원수의 말을 잡고 귀안이 송덕  
추며 귀안이 축수 홀손가도 호박발노인이 죽장을 잡고 썩러  
진감토르보고 어리악하압세우고 동편 팔목의 나오면 셔술  
초잔바다 들고 안주는 낙엽의 싸서 손자의 게들이고 괴염과  
염과 여나와 원수 전의 비비치사하며 만세를 불너 왈 소인  
이도 성문너사 옴더니 심덕독신으로 소인의 게 밋쳐 삼자 일  
녀를 나하노고 권이 질너 제 몸의 장성터니 만고 역적 정호담  
이도 성을 쳐과하고 용상의 곱피안켜자 충천자하고 만민을  
도탄 홀제 소인의 자식 두를 군사의 죽슈야 전장의 밧오다  
가 자식 훈나를 죽여셔니 옥황이 남경을 도스사 장군 임을 남  
경의 점지하야도 적을 치라하고 진중의 말여 드러져 강정문  
경을 반흔의 배혀들고 천자를 구완하시건늘 소인의 꽃터차  
식음성중의 두엇다가 은정호담의 계취일듯하야준군조정

만익게야간도망하야장군임진중의보너고복드칠성전익  
일연삼백육십익의박마닥축수흥며우리나라장수님이승  
전하게하옵소서이라타시축수하옵더니장군임의심을입  
이명진군소는호나도상치안교와것피로소익의뉘터자식  
이사러나셔이손자를두어보너이놈은장군임자식파다르  
미엄난지라이제난소익이죽어도백골임토출자식이엇고  
선형형화바들론자잇사오니이난모도다장군임의덕이소  
미소익이죽을날이며지안이후손지라다만술호잔을장군  
님것의올이나나만세무량하옵소서이제죽어도여호이업  
실가하야손자를이클고왔난이다이셔원슈며주부와황후  
터후터자며제중이말을듯고일십이비감하야나누흥며왈  
이난모도다노익의축수호공이요천자의은덕이라날갓탄  
스름이야무삼공이라하리요도라가편이살나노익이드리  
난술은바다천자의게드리고히관을지출하니천자노익의

말을듯고조정만을밧비불너그노인의아달의동행을아리인  
시하라하시니이씨호군사셔러진컬립쓰고호도초나손의  
들고원슈압푸복지하엿건늘생명을루른후의충찬고친  
국문호위장을삼아빅총독을부쳐늘근아바를섬과라하고  
말을지촉하야도성의드러컬너셔드러가니약과잇난충신  
드리고두빅비치사하고물너니삼군이원슈를통덕하더  
라이셔천자와원슈머황후리후일석의안져말야토록천후  
고상하던말을설화하고잇드말천속판을흔너호당을자바  
다가구경설의업지르고슈주부천자켓티안자나족을호령  
하아위갓형벌갓초오고수적왈네이놈정초담아천상을치  
아다보라나를아난야모로난야네자충천자라하더니만승  
천자도두팔이십난야초고만홍기심의이리복지하기난무  
삼일고네죄를네아난야조담이보지주왈소신의털을써여  
죄를논지하여도털이모지리오니죽여주옵소서슈부뒤로

월죄목이 열가지니 자셰이드르라네놈이 천상의 성으로 명  
국의적감하야 용민이 절인하미 도스를 다러다가 노코항상  
천자를도모코려하니 만고의근죄호나이요 조침의죄심을  
써려무죄호신하를무롬하야 나를연경의귀양보너니 죄두  
리요도사놈의말들듯고신기호영웅이 황성의잇다하미닌  
자식을죽이라고너집의불을노왔다가사라회수의당하미  
군사를보너너의자식을철박하야물속의더저죽이려호  
거시죄셰시요되저상강히주를역저스로물아옥문판의보  
너어보너죄너이요강승상의가솔을잡아다가중노의선죽  
은거시죄다섯시요황후리후리차를사로잡아진중의가두  
어주려죽게하미죄이섯시요충심을다죽이고천자를노가어  
도적을막으려하다가도죄의게호복하미죄일곱이요자충  
천자라하야심망글도탄하고충심을차바항복받고려하미  
죄야달이요호국의청병하야황후티후티자를호왕의게잡



고장안미외보화를모다달취하야남적의게보낸  
가이죄아음이오천자를번수가의죽이러하미죄열가지라  
세상의인신되이만고의업남열죄목을가져쓰니이러하고  
실과을바릴손야우리황상게옵서이러타사상호일과더비  
된공게옵서이러번죽을번호일과만성인민이며육국군사  
죽은이러고강승유부타국의죽게된일과천하진동하야  
조요사적의위타고고비성디리황검하야신자사방의도망  
하니이게도강의놈의소위안이냐호담이아무갈도못하고  
묵부담이라나졸을천축하야호담의목을장안시의베히  
라하나나졸의달여드러호담의목을미여수리우의놈피실  
코장안디노산의저축하야나오며웨여살이바비성더라만  
고역적정호담은오날노베히려가니박성덜도구경하라  
하며소리호고나을적의성충성외비성더리호담죽이러고  
단말을드고남녀노소상하업시그놈의강을너서먹고저하

야동편사랑은셔편을고르고남촌사랑은북촌사랑을불너  
셔로차차골목々々이벤트음습시나오며이바벗임너야가셔  
々々어셔가셔만고역적정호담을주리원슈장군임이사로  
자바두팔코고전후죄목무른후의백성털을뵈어라고장안  
시의베친단이밤비々々어셔가셔그놈의살을베쳐부모살  
은스름은부모원슈곱꾸주고자식일은스름은자식원슈곱  
꾸주시빅발노구손차업고홍안소부자식품고전후좌우나  
열중야엇던스름은달셔드러호담을호령하고엇더호녀인  
더른호담의상도잡고인척버쳐양귀미를뺏고치며네이놈  
정호담아너안이면너가장이죽어브며너자식이죽을손야  
덕퇴이호치갓투우리원슈네놈목을진중의셔베히더면네  
놈고기를맛보지못할거슬백성털을뵈어라고산치로자바  
너여오날々베친고로네고기를난와다가우리가장호백이  
나여호업시호푸리라수리소를지축호야사지를난와노니

장안만민드리별혜가치날여드러점<이올러노코간도너  
여첩어보피살도베혀먹이보며유원슈의골품덕을뒤안이  
충충후리과도과만의회시후고최일귀정호담의삼족을다  
멸충고천자삼충단의올나천제후고주부유심의직립을르도  
<와금자광녹타부덕충상연국공의언왕을몽후시고옥시  
송포의통천관을상랍후시고만종녹을주시고원슈로덕사  
마디장군의검충상의국공을몽후야만종녹을점지후시고  
도신결의후야충무후를몽후시고그나문장슈와근사를치  
레로베살을주위상사후시니모다질기난소리티평천치쇼  
지일일순지근근의장구동음질기난듯천각를축수후며원  
슈를송덕후난소리천지진동후더라연왕부자천자은덕을  
축사후니천자위로알그디의속소를의선정후야약간공을  
씨건의와그은허를급풀진디살을와가봉양후고천만번이  
라도충상의공은급풀지리업다후시니원슈복지주왕천은

충렬전下

三

이망극충와부자는 만나건이와모친은어딘가고이런주를  
모로난가옥문판의적거호강승상은죽어난지살어난지가  
련츠나강낭자는청수중의죽어브니어딘가쳐만나볼가당  
자의부탁호되로옥문판을차자가쳐강승상의혀나거드쉬  
다가무더쥬고최수의모친을제사호고청수의지너오며강  
낭자의혼비가나위로호고다른디취쳐츠야부친스게영화  
를뵈일가츠난이다호되상이말삼을드르시고비감츠야  
티후천의그말삼을고츠나티후난강승상의고모라이말삼  
드고실피낙누츠시며원슈를입시츠야손을잡고골며할강  
승상은너의족호라지금가지살아난지그대의심을입어너  
몸은살아브나친정일가는그호나뵈이라사러거든달려오  
고죽어거든빈골이나주쳐소소원슈쥬왈도사회되야난이  
다티후드고더히츠야이게원말인가만고영웅중중열이너  
의충신인줄만알아셔너의손녀가되여유나어셔가

성사를 알고 그 뒤의 무친파 너의 손녀를 인로야 아계사하고  
급피도라고게하고 소원승천자와부왕게하고 직하고 뒤군을거  
나러바로셔빈국을형야양판을너머서편관을트달야  
겨셔밤비셔셔빈국의보너고침군을저축야드러가니셔  
친삼십육도군장드리충열의지조를할고함갑야금은보  
화를만이슬고속셔와지도셔를투의들고항셔를뿐인슈전  
의바치고인물을목의걸고나고치항보고거날원슈장대의  
놈피안저군왕을차버너여일고수죄하고항셔삼십육장을  
연포야장계를급피배셔남경으로보너후의변왕을볼너  
옥문판소식을듣고직시형군야옥문판을차려갈게살포  
마음진청하고성증의달여드리슈문장을볼너친자의공문  
을보이며져거훈김승상이어디잇난야슈문장이엇자오디  
감승상이성증의잇삽디니십여일전의남쳐이달여드러감  
승상을차버너어초국으로갓난이다원슈이말을듣고분심

이시로나셔도기등々々야군사를혹문판의두고수문장의  
게신척야군사를착시리호군야나도라오기르치달이  
라후고필마단검으로남천을바리보고궁등을혀쳐나난다  
시달여드러갈제호국지경의다々르니분기덕속된천야  
적셔를보너니라이셔가달왕이남경의셔다적간일등미석  
좌우의안치고가진풍악으로날마달결기더나다려간도사  
마음이산관야천기를살펴보니남경도원슈지경의들드리  
오거늘더경야왕게고초디남경도원슈지경의들면엇지  
후리요문무제상글로와방척을의논출셔장야의상위디장  
이비금투고의촉운포를입고삼천군첼된들료구쳐장편  
을좌수의들고게야의복지주활소장삼형제는번양석장동  
사는마척동이웁더니남경슈충열이드러온단말을듯고불  
원천리왓사오니소장을선봉을주시면충열의몸을베혀소  
리나다모다보니신장이십척이요기필이엄장초지라가달

왕이 두하하야마찰노선봉을삼고마음으로중군을삼고마  
학으로후군을삼아정병팔십만을조발하야석두산하의유  
진중고도사와문무비관을거나리고산의올나귀경하더라  
이셔감승상이되놈의게잡퍼가셔힘악이극심하되종사항  
복지안이하고진옥을루수의하니호왕이되로하야미구의  
죽이려하더니뜻박경기원슈드러오미죽이지못하거절옥  
의가두고주려죽게하난지라호왕이남경의셔다려간게집  
호나히되놈의게중시취절치안이하고일성남승상을보든들  
고셔나지안이하고불피풍우하그밤마다축원하야왈우리  
나라유원슈어셔와셔날적을줍몰하그본국스름을살어너  
여부모일풀을다시보게하옵소서이라다시축슈하더니뜻  
박과감승상을죽중의가두니호가지로셔러가셔주야호토  
호지라이셔원슈필마단창으로호국의말여드니석두산하  
의컨병만마유진하야브며검술을히롱하그의기양하거

충무공전하

늘원슈순식간의달여드러져진을바라보며벽역갯토소리  
를천동갯치지르며네이동가달왕아강승상을치치말나  
며적진선봉을헤쳐가니디장마철이웅성출마야원수를  
마자빛와반춤이못하야철되마자부셔지며창검마자셔러  
지난지라마음마학이제형이당치못홀출알고일시의달여  
드러좌우로쏘차오며달여드나일광주응인은천신의수  
적이오흥공의조화라살조리가범하며첼란조나마질손가  
잔성검번키되야동천의번듯하며마철의머리를베이고남  
천의번듯하며마음을베치고중왕의번듯마학의머리를베  
혀들고쳐진비만디병을순식간의홀물치고천사마를치축  
하야석뒤산하의다크르니초왕과도스뒤경하야도망하되  
천사마뎃난압푸나는제비도가지못하거든하물며스롭이  
야엇지갈이오경각의달여드러초왕을치니통천관이쉬야  
지고상토마자업노지라초왕이엇자오뒤이노너죄안이라



모도다속판도사의죄로소이다원슈분홍중의속판도소말  
을뵈고왕도소난서다잇난야호왕이그리와자가라치거늘  
도소를자바너여권후죄목을무른후의너를이고던죽여분  
을몰거시로던남경으로잡아다가천자와우리부친전의백  
척죽이라하며두손목을싼코두발을싼어슈리의실료쌍중  
의드러가호왕을수죄고강승상을무른죄속중의가두엇  
다후거날옥분의달여드리옥문을씩치고승상을부르니승  
상과조낭자호왕이죽이라고찾나가던경야괴질고난지  
라원슈백비드러강승상전의옛자오던진심을진정고흡소  
석소자는최사정의만나던슈충열이숨더니던명국도원슈  
되야남적을출몰고호왕을잡고도를사로자바이고던  
와난이다승상이혼몽중의충열이란말을뵈고별덕이러한  
저보니과어충열이분명고다살책달여드러손을잡고통곡  
하며고난말리아엇지다충양출가조낭자정티안저다가원

수란 말을 듣고 압푸달여드라왈 장군 임이엇지 알고와셔 죽  
 은 사 례를 살여 너여 고국 산천 다시 보고 부모 동성 다시 보게  
 하나 이 권일이 소잇을가 처자 남도사라게 시닛가 원슈 대답  
 하고 승상 천의 엇자오 뒤집을셔 나 백용사 부체를 만나 천장  
 기게 어든 후의 남적을 좃몰고 고소란 말삼을 낫키고 후니  
 승상이 더히 후야 충찬 불이 후더라 원슈 조낭자 천 후 슈 말을  
 무른 후의 치사 후고 춤기 려문의 드러가겨 셔를 벗셔 토번국  
 의 보너니 번왕이 원슈 온단 말을 듣고 황겁후야 항셔스고 처  
 말을 깃초와 사신을 부러가달 노모너니 날사신을 수죄 후고  
 달왕의 항셔와 번왕의 항셔와 도사를 사로잡아 보너난 원슈  
 를 처자게 잡게 후고 천일이 가달왕이 남경의셔 다려간 미식더  
 슬 낫키 치차자 본국으로 가자 후니 이셔 미식드리고 국을 쟁  
 각 후고 부모를 생각 후야 주야 호탄 후더니 원슈를 만나 미천  
 지도지 후야 나 오머 천후 좌우나 열후야 원슈 천의 백비치스

후고송상을모시고원슈를서라올제준마삼비필의나스치  
다티우고조남자는속표를다고강송상전티안자칭군을지  
촉공야도라올제어러날만의회슈의다스르니소연초삼이  
절노난다천듯던풍낭소리스름의간장다늑이고전의보던  
좌우청산창부초심도스운다원슈모친을싱각야백사장  
의나려안져가삼을두나리며세스원청기로공야제물을장  
만층여제사촉라층고번양회슈드러갈제남만오국의석마  
든금은치단이여옥문판의두고갓던군사며다러오난막석  
드리며강송상은말이모셔조남자는속표타고소마딩로칭  
군공야번양청중드러오너그영화그거동은셋날소진이슈  
국경승인을차고거기치층나열층야낙양청중드러가난듯  
당나라픽분양이양경을회복층고분양사의왕이되야고칭  
의도라운듯과도의백성털은천후의송쉬층고일읍수령더  
른좌우의나열층야권마청층남소리만공의놈피셔고좌의

초추난소리원근의진동초마괴사의좌귀고번양티수뱃  
비불너천금을너어주며제물을참만홀제원갓어육갓초소  
고원갓치소등디추야각음판장시위추고가진제물봉진출  
제백사장십니들의벽포청장들너치고원슈는벽의입고벽  
건벽디의친갓쓰고죽문일장실피지어회슈가의나오나이  
셔조낭자은모욕저게청이추고소복으로단장추야힘노들  
고원슈를비힘추야물가의나을제고금다를손야남경도원  
슈회슈의색처죽은모침을위추야제사초단말을듯고남너  
고소업시원슈공덕을치스추며그얼골을보라추고쌍작  
반추야회수가십니들의비틈업시들너쳐스구경왈케원슈  
제소의드리와삼층단놈피무어단상의제물을진설추고조  
낭자는힘노들어단상의올여노코낭자가잡사되야분힘추  
고나오너원수통곡추고계좌추야독축추니그축문의추어  
브되유세차부경심친년갑자의원놈인악이십팔일신사의

남경동성문너셔사는불효자유충열은모친장씨전의예로  
과초와지전으로허상고혼을의로호소니혼박이나바드소  
셔오회라우리부모년광이만이남어일점철효의업셔외로  
복중의셔문마음남악산의정성드려천형으로충열을나아  
노코이지중지키여너어영화를보려셔니간신의히를보와  
부친이만리연경의간후의모친만모시고잇다가피화야  
다라날체가물가의다크르니난디업난허상수쳐사면으로  
달여드러우리모친절박야풍낭중의너쳐노스니모친임  
은과더업고천형으로모친목숨충열이만사라나셔모친쥬  
사던옥호을이더천장귀게와셔도적을합몰중고정초  
담과최일권을배인후의천자를구완중고만리연경의쳐거  
중신부친임을모셔다가천은을입어연왕이되야만종족을  
박게하고남적을소멸후의강승상을살여너이절노소  
옵더니모친을성과야이그덕왔소오나모친은어더가고

충열을 모로난간 호국의 장덕부찬은 사리왔 비옥문판갓던  
 감승상도사러오고 호국의 잡퍼갓던 고국스름덜도사러오  
 고 황후티후충충속 체번국의 잡퍼갓다 충열이 가살여왔네  
 모친은 어딘가고사 라올 줄 모로난가 이 번의 부친임이 소자  
 를 보너신 제부탁하시기를 번양셔의가네어 마님을 차겨오  
 라하시더니 만경창파 집품물의 비골인들 차질잇가 모친님  
 이 옥춤을 주실 제 수건의 싯글시를 가져와쓰니 호박이나와  
 셔 충열을 만켜보시요 충열은 명나라덕스마도원슈의 겸승  
 상위국공이 되고 부친님은 금차광복덕부겸덕승상연국공  
 의연왕이 되어쓰니 이갓단만그영화를 어딘가고 모로난가  
 우리집의 불을 노은 정호당을사로 잡아 정옥의가 두엇다가  
 부친을 모신 후의 부친압푸업지리고 전후죄목을르르후의  
 그놈의 간을 너여모친임전의 체스스야셔니 그런주를 아러  
 난가 충열이 귀히된 줄은 령은알연마는 언제다시 만나볼까

세상의 권준영화날 것단이 업건만은 피 것단이 너는 물이 지  
중야소사난가모친님을편이모셔연만중야도라가면이디  
지통박홀가만리연경의가장일요우변뒤희의자식일요도  
적의게절박중야슈중고홀되야쁘니천만세르려너갈들모  
친갓치통박홀가홀령이나외겨거든이러타시만반진수를  
흠험중고도라가거후심이나다시만나세상봉모자되야  
다치못호자모지렸을다시풀가바리난이다중홀만삼구궁  
호소나눈우리홀너웃시것고흥중의답중야그만근치난  
이다상험중며우난소리홍궁의사못차고산천이흠누중너  
음신도낙누중고산신령도비갈호다이셔박포장너외간의  
귀령중난스군더리원슈의축문외오며우난소리를드르너  
철석간장안이여든뒤가안이낙누중며초목금슈안이여든  
언이뒤가안이울이좌우방박수령터른썩리난이물물이요  
각음군수현령크른셔로보고실피우니그중의환과고독셔

음일고하

三六

문소 곱음방성통곡호난소리김천이창망호야일월이무광  
후고음무작옥호아천지나적호다제를과호후의원것음식  
만이쓰셔희상의드리치고성중의드리와군사를호군호고  
길을떠나갈시과음의선문노고금능성중의드말호야속소  
후고군사를쉬난지라

**고정**이성장부인이활인동니쳐사집의잇셔세월을보너더  
나일<은남경의날이낮단말들듣고탐식왈호리업다이제  
는주부속절업시죽것다우리충열이사라보면평난호고부  
모를차지러마는죽과가적실호다방성통공중너너마잠너  
첫사번양의갓다가더명국도원슈유충열이회주의쳐제사  
호난말들듣고백성충중의홍귀경호다가원수죽문외난  
소리를듣고더경더히호야급피집의도라와장부이다려왈  
세상의괴이호고의심난이리잇는다마잠소날<번양의갓  
삽다가오숨더니남더로서천병만마드러오며회수가의둔



취추엿거늘 무른 직남경도 원슈슈충열이 모친을 이항야 호  
수의 제사 춘다 호 괴로 백성 호 괴 귀경 추터니 원슈슈의 소관  
으로 만호 제물을 진설 호 동축 호며 통곡 호 남소리를 드른  
직적 실아 부인의 아달이라 부인 항상 호 시던 말삼을 맛호 치  
추터니 다 부인이호 말을 듯고 머리를 쳐 부며 성을 두 다리며  
왈이게 웬말이냐 원슈의 호 티말을 다 시 호라니 처사 단왈 전  
후슈말 리약 차호 호터니 다 부인이호 말을 듯고 왈 왈 님  
셔며 왈 어저가 시너 아달 충열이 사라 왓네 옥출을 바터 단말  
이엔말인가 통곡 호며 가고저 호 거늘 처사 말슈 왈 처사 리 큰  
어찰진던 너가 몬져 크친위를 알고오리니 다 호고나 처거늘  
원슈나 혼열마나 호며 제의외가는 뉘 집이라 호터니 가더 왈 나  
흔이 심이 쇼외가는 이부상 처장 슈이라 호터니 다 부인 왈 처  
사 리 그러 호구나 너 아달 안이 면 엿지 너의 부친 존위를 알야  
밧비가 처 알와 오소너 처사 전지도 밧비가 처금능 청증 밧

여드러군사를물너통자후되만수산활인동사난너쳐사원  
슈천의보와지라후난이다원슈들나후너쳐사드러가비시  
후고안진후의공덕을중송후나원슈서양후되막비천자의  
덕이라무삼공이잇사오며무삼허무리잇쳐누지의욕임후  
시닛가쳐사활적사리알고저후난이리잇쳐왔사오나예제  
날회슈가의장공독축후난말삼이정영그러후손잇가원수  
이말을드르미마음이자연비감후야실피너누디활귀인은  
엇지못난잇가적사리그러후오나다적사리그러출진디만  
고의드문이리라슈주부를모쳐왔다후나슈주부는너의쳐  
숙이라천일의그런말삼후너가원슈덕경활천인의존호  
스를드르기미안후나천일출임학사나인학과엇지되난잇가  
쳐사활너의부친이로소이다원슈이말을듯고쳐사의소을  
잡고활존형을이고쳐와서만나볼출몽쳐이나성과후오릿  
가쳐사도그제야단무타이라원슈를분들고비감후야알모

친을 지척의 두고 엇지 차질투을 모로난 가원슈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야 제우진정하야 처신을 북들고 활이 게워말  
인가 너의 모친장부인이 근처의 잇단 말리어 인 말류 처사인  
수를 위로하야 정신을 차린 후의 활이 리천만고의 뜻이  
슬가 나를 여라 가면 모친을 만나 리라 원슈 마음이 건공의 처  
여 처사를 여라 갈 제 진지도 하야 순식간의 처사 집을 당도  
하니 처사 급피드러 가며 장부인을 불너 활척속모는 어디가  
저신가 충열이다 러왔나 니다 이셔 부인이 처사를 보너고 소  
식을 알 아올가 만심고 더하던 차의 뜻밖의 충열이다 러왔단  
말을 듣고 더경질 석하야 기절하난 지라 충열이 달려드러 문  
압푸복지 하니 처사 구완하야 정신을 차린 후의 부인이 여광  
여취하야 하난 말리네 가 귀신인야 너아 말 충열인야 너아 말  
충열은 최슈의 일정 죽어 거든 엇지 사려 육신이 온가 너아 말  
충열은 등의 삼티성이 표적으로 박쳐난 이라 원슈 급피웃슬

충열이

충열이

벗고저티안지니파연삼티성이두러시박치잇고금자로의  
인거시어제본듯완연하니서로부들고방청통곡하니형이  
만리호국의부친만날셔와비나더호지라뜻밖의모자상봉  
후야브니인지상정이라고금의달을손야죽은부모다시만  
나영화보게되여브니반갑고실품정은일구난철이라부인  
이말하니충열이울고충열이말하니부인이운니칭찬일월  
이무광하고신천초목도다실어하니난듯이여강증상이며조  
남자이말을듯고옥표를갓초와할인동의드러올제언비천  
리라회슈의제스하니승충열이할인동니쳐스집의셔모친  
을만났다하니각음판장마귀김하니사름금능성증의드러  
셔로보고충찬하니말이<리말은만고의취음이라엇던부  
인은팔자가조와저러아달두엇난고하니귀경하니라이셔  
강증상이옥표를가지고할인동의드러가부인천의예하고  
부인을모셔성증의드러올제귀경하니녀인드리옥표를잡

고부인전의비비치호고송덕호난소리산신령도춤을추  
고강산동우질기나호물머사름이야무언홀가부인이났  
치위로호고성중의드러와수일기터나잘틀떠나미니켜  
사가권을로도다거나리고황성의올나갈체활신동어구의  
삼장셔비를세워전후슈말을치록호고셔천삼십육도사신  
이며남만오곡금은치단만여필을압세우고남경인물이며  
군사좌우의나일호고과도과판방바수령전후의용위초디  
귀경호난사름조차백니의연속호나낭자호거동은천고의  
첫음이라원슈모친파승상을모시고질을떠나영능을바리  
보고형군호야올나갈체일히일비실핀마음소연호심절노  
난다슈중의죽은부모다시만나보나강낭자를어디가셔반  
나볼가모친보고승상보니남궁가북궁슈라모친은옥고충  
의희석이만면호야천만근심셔를버셔잇고승상은수리우  
의일히일비실핀마음쳐자르호과호야수심이만면호터라

영능으로 드러 올게이셔는 춘삼월이라 천지 기운이 비출하  
 야 만산의 흥놀다 큰일연일도다 사만나 빅조춘경닷토올게  
 연자는 남<sub>2</sub> 인가를 차 들고 호접은 편<sub>2</sub> 화산의 나라 들게  
 남무<sub>2</sub> 성입하고 가지<sub>2</sub> 봄빛이라 튀평성 뒤다 난빅  
 쉰춘초년 흥안마석쌍<sub>2</sub> 이작반하고 삼<sub>2</sub> 오<sub>2</sub> 답쉰너는니  
 화도 화셔 거 들고 흥산곡도라 들어 화전<sub>2</sub> 며길 거 출제 춘심  
 슬못이 괴어 쌍<sub>2</sub> 뒤무<sub>2</sub> 며노리<sub>2</sub> 야유원슈를 송덕<sub>2</sub> 너그  
 노리질 겁도다 천운이 순환<sub>2</sub> 야 뒤명이 발가쓰니 만고의어  
 진영웅의 침의 낮 단말가 동성문다 리인의 유상공의 집이로  
 다역적이셔 모로고 쌍나무 활홀미니 원슈의 가진 칼이 사히  
 의발가 또다 승전곡 호소리여 흙물도 적<sub>2</sub> 야 천<sub>2</sub> 가 튀평<sub>2</sub>  
 니 초곡의 죽은 군 천고 흥의 사라고고 여림의 잇난 커자부모  
 춤과 동낙하니 우리 인군덕이 곱파일 통춘광<sub>2</sub> 사철의 비화  
 만발피여쓰니 화전<sub>2</sub> 흥는 빅성드리니 안이 송덕<sub>2</sub> 너리우리유

원슈보모만나다남다보후손소신이러다시길기후니원슈  
는강낭자를싱과후야영능형중의드리오너이저은승상의  
고토라살핀마음을엇지다층양후리오외사의숙소후고일  
게촌소시를압고자후야사오일을유려후난지라

**고절**이허강낭자목심을도망후야청슈가의오다가모친은  
청슈의생겨죽고낭자는영능플판비게잡펴와머무나친비  
후난힘사가고금이달을손아낭자를만리유후야뒤슈의  
수청을드리고쳐후여수양살을삼은후의무슈의취결코자  
호들빙설갓달말근결기일시를변후며일월갓치발근마음  
궁곤타고변홀손야이췌로모피후고제췌로모피후니판장  
의게후도보고판비의게미도만이마지니가련후그창상은  
참야보지못홀네라이세예판비열후나가잇스되제몸은미  
친후나마음은어지러의일낭낭자를불쌍이여겨그결기를  
충찬후야게모를말유후고낭자를우완후며미양몸을밧고

와제가슈청하고낭자는구완중야살나난지라이셔유원슈  
동원의좌귀하고사오일유려홀제판비싱과중되원슈는호  
걸이오낭자는미식이라이런셔를당중야수청을드려쓰면  
원슈의혹호마옴천만양을앗길존야급피드러가형수천신  
하고나날밤의낭자를보너고져중티니제의설연심이또이  
기미를알고낭자다려왈금야의변을만날거스니그뒤싱과  
중야시양치말고드러가면너가중노의잇다가뒤로드러갈  
거시니글이알고잇스라과연그날밤의판비낭자를다리고  
귀경가자중며동원스로가건들낭자우시며왈이게본염예  
말고나가라원슈의수청이야시양을엇지중리오판비뒤히  
중야왈네몸이과이풀푸다이고을판장은무슈이지니되중  
시혀락자안이후더니남경뒤사마도원슈검린중상의국공  
의수청은시양치안이중니인물이잘나고도볼거시다마옴  
도놓푸고소원도놓도다우리도소년시결의일게촌강중상



이후남절도사로와겨실제일릉미쇠삼백여명충의나혼자  
수첩드리금은보화를만이하다셔니세월이원슈로다후며  
이러타시비양후고나가난지라이녀녀심이제어미나가물  
보고남자를넌보되고제가드러가니원슈등족을받키고남  
자를싱과후야금낭을슬너낭자의클을볼제일자일체후니  
실품호심절노난다삼경야월은엇가지여빛초난듯공산두  
걸우지말라너는뉘를싱각후야장부관장다죽이나낭자는  
어디가고속절업난글두귀만큼낭속의드러난야여판흔등  
독날면후니괴심후사로천제연은날노두고일으미라일낙  
장사추식원후니부지후쳐조상군은낭자볼갈업서미라옛  
날사야장경은초년의관궁타가문장부귀겸천후야고칭의  
도라오니그안취탁문관이문밖의빛비나와손을잡고드러  
가고낙양석소진이는천순백년몸이되야관수이지너더니  
육국정승인을차고<sub>고</sub>형의도라오니그안취전지도지나와

인도후야 드리 가 되던 명국왕충렬은 조년의 부모일코심성  
구사살아나셔도 원슈뒤송상의만리타국의송천후고죽은  
부모살여너고칭의도라운돌침수의죽은낭자엇지와셔  
마자가며소박발강송상을두어시라위로할가이러타시  
호탄후고그밤을치너더니이녀낭자연심을뒤로보고침  
실의도라와원슈를심과후아자탄후고잠못드러심과후되  
세상의수상초일도잇도다원슈의생명을드르니네의낭군  
파동성동명이라낭군이적살후거티어웅당원개촌의들어  
가우리집소식을무르면만은월계촌을안이가니답후고  
원통후다연심이어셔나오면진위를아라보리라후고경  
불미참못드러금낭을늘너노료낭군이쥬던글을보며자  
이낙누후며구천의만나자고말삼이잇셔셔니모진목심사  
라나고낭군은죽엇도다살기뜻살아브면뒤연국도원슈를  
너의낭군박기후리업천마는물나보니답후다이튼날연

심이나오다가 제어미를 만나니 판비그기미를 알고 뒤로 추  
야원수천의알외고낭자와연심을죽이고자추야급피드러  
가문안추고엿자오뒤소인의살이얼골리전색이오뒤도잇  
난고로상공천의수침을보너셔니 제몸은과추고다로연이  
뒤로드러갓사오니 두토을치죄추습소쳐원슈뒤로추야뒤  
로온녀을나입추라연심이잡퍼드러게추의복지추니원슈  
문왈너난부삼욕심으로디신을잘단이난야죽을의도뒤로  
갈가연삼이엿자오뒤소녀비록천비오나일심의수결추난  
스름을불상어기습더니수년전의이미외촌의갓다마엿디  
흔녀자르려다가수양살을삼아등너마닥수침을드리고  
자추되그녀자구든결카청천의일월갓고삼동의추불갓치  
변할기리입난고로소녀미양구게추습더니마잠뒤상공이  
칭차추습시미그녀자를후완추야뒤로와소오니죄를추습  
소서원슈이말을듣고마음이절노비감추야의심이나난지

라다시왈고녀자의청명이 무엇이며절기있다후니 뒤집녀  
자나연심이뒤왈고녀자소녀의사오년을동거후되종시청  
명을모른다후고뒤집이란말을안이후더니 다원슈고히여  
거왈적실리그러출진디밤비입시후라이셔낭자연심이잡  
퍼갓단말을듣고신체를자탄후더니 뜻밖의만비심여명이  
나와잡아다가게후의복지후니 원수창문을열고낭자의상  
을보니숙면인듯후고심신이비감후야자채이보니의상은  
남누후나괴징되기심심박기호천인자식앗감셔다원수소  
리를나지거후야낭자다려왈거동을보니천인자식안이은  
녀자의말을드러거니와수절을후다후니 뒤집자손이며낭  
자는누구판히청춘소년의수절후며 무삼일노처리되어관  
비양녀자가되어난지진경을은위치말고날다려이르면알  
일이잇스리라말을자상이후라후니 이셔낭자게후의복지  
후야원슈의말을드르미낭군과이별할셔후직후고가던말

리두귀예 정호야 일분도 다르미 업난지라 남자 천일은 도  
망호야 왔괴로 성명 거처를 속여 혀니 마음아 자연 비감호야  
진청으로 엿자 오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안이라 이 팔월 개초  
사은 감승 상의 무남독녀 읍더니 부친이 말리연경의 귀양간  
유주부를 위호야 상소호야 혀니 만고 역겨 청춘담이 충신을  
모호호야 승상을 호문판의 귀양호고 소녀의 모녀를 잠바궁  
비속공호라 호고 금부도사와 잡아갈 체 청수의 야간도 주호  
야 모친을 들의 섣겨 죽고 소년도 죽으려 호더니 영능판 비외  
초의 갖다 오난 길이다 리고 제 집의와 혐악이 무슈 호되 연심  
의심을 입어 이 혀가지 살이 브나 오날은 이 말을 원슈 전의고  
호고 호리 업자 자결코 호난이다 원슈이 말을 들트고 당의 혀  
여 내려서며 이 게 웬말인가 영능티 슈바 비불너 감승 상을 호  
시라 호니라 이 혀 감승 상이 혀 자를 생각호야 잠을 못자니 몸  
이 곧 호야 조으더니 뒷바기 원슈 오시란 말의 놀너 어드러 오

니원슈왈이게강낭자안이온넷가강낭자사라왔난이다승  
상의말을듯더니정신이아득야쳐지가장감호지라원  
슈이별출려셔로주던신표를녀노고상고츠니일호도의  
심이업난자라승상이낭자의목을안고궁글며왈너열경화  
야청수의죽엇다더니혼비이사라왔냐숨이나성사냐너의  
낭공은가충열이와쁘니소식듯고차와나우의집이쏘이도  
여양유쳤푸린가지번터만다마쁘니실품마음엇지다진  
정충리원슈낭자를보고츠난말이며세정담을엇지다가  
로출가이셔장부인이니동원의잇다가이기별을듯고급피  
나와보니낭자고부지예로문안고살아난말삼을자상이  
츠나장부인이손을잡고왈채상스름이고상이만다츠나우  
리고부갓달손나아셔낭자다려간판비혼비이상천고고관  
장이늑난듯원슈동원의놈피안켜판비를자바드려수죄왈  
너를죽일거시로더니갓탄천기년이스름을유라볼손야쳐

수의가 낭자구초일노방송추난니 덕인졸알나연심을볼너  
무슈의차사후고보너러후니 낭자겨터안겨야가알연심은  
날과백년은익이니일시차사뿐안이라평심을준기지너고  
겨후나니황성으로다려가사이다원슈그말을졸의여겨연  
심을볼너부인을차시리모시라연심이황공중의후더라원  
슈전추사연을낮키치기록후야나라의장개후고김을써나  
올시장부인은금뎡을타고강낭자와조낭자는옥교를타고  
좌우로모시고강승상은수리타고오국사신이모셔난뒤원  
슈는일광주옹이편의장성김을들고덕완마상놀이안자오  
마뒤로행군후야와키이나오너그거동과그영화는천고의  
처음이라개양역을지너여침수가의다키르니소부인죽던  
고시라원슈승상을위후야영능퇴슈밤비불너계물을작만  
후야승상을주인삼고조낭자는집사되야원슈는죽판되고  
독축중며통곡후난말리회슈의모친제사홀셔와다름업터

라계를파훈후의형군후야올나올제이서천자와황터후며  
연왕파조정의서출열을가달국의보너고주야성각후며장  
부인을차자오난가후야일야초탄후더니뜻박기원수의장  
계를보고질거온마음총양업시며장안벽성더리니말을듯  
고각자식을보랏후고다토와나오더라천자와터후와연  
왕이박나박기나와마질시원수의위엄을보니서천삼십육  
도며남만오국의며금은예단파일등미쇠드리차레로말을  
타고오국사신이선봉되야낭자후게드러오고그가온뒤금  
동옥교셔오난뒤감낭자는좌편이오조낭자는우편이라좌  
우척장고여난뒤금슈단양산더은반공의소사도다감승상  
이수리수의놉피안차오며군사천후나열후고그뒤의사로  
난이십장훈모사명키는준가온뒤제위오고용정봉피뒤장  
기며기치창검삼천병마천후의적뒤후고승전고와형군고  
는원근산천의진동후며도원수는일광주용인협장성검을



피들고 천사 마빰겨 타고 황용수를 거사리고 봉의 눈을 반만  
셔셔 군사를 지축하니 웅장 초거동은 일디 장관이요 천추의  
피문이 라이셔 장안 만민이 남적의 잡퍼갓던며 나리며 설이  
머동싱더리 본국의 도라온 단말을 뜻고 초산력 십니 설의 빈  
틈 업시 마조나와 각<sub>2</sub>만나 옥수나 삼부여 잡고 가루던그 정  
곡 못너질 거축야 우름소리 우심소리 반공의 뒤셔기어 초산  
디가셔 나간 듯 원슈르르차축고 장부인을 치사후난 소린방  
자축야요관<sub>2</sub>고금산성축다<sub>2</sub>르니 천자와 황디후옥연의  
밭비나리 장막박기나셔니 원슈급주를 갓초고 군례로 천신  
추니 천자와 티후원슈의 손을 잡고 못너치사왈과인의 슈족  
슬만리 타국의 보너고 주야 염예축터니 이렛타시 무사이도  
라오니 질류운마오엇지 다충찬후며 회슈의 죽은모친다려  
온다하니 만고의 업난일이며 옥문관의 강승상과 천수의 죽  
은강낭자를 살셔오니 천추의 드문일이라그터의은혜는 백

끝난망이라그말이야엇지드후리요황티추원슈를치사호  
후의강승상을부르시니승상이반비드리와복지후니천자  
나려와승상의손을잡고위로와과인이불명후셔역척의말  
을듣고충신을원방의보느스니무삼면목으로경을디면후  
리요그러후나왕사는물론후오이셔황티추승상을보고후  
시난말삼이야엇지다칭언후리이셔연왕이다른사척의잇  
다가장부인이금덩을타고오물보고마음이건공의셔쳐충  
열이나오기를고디후더니원슈척자게물더니와부왕전의  
복치슈와불효자충열이남척을소멸후고오난질의회슈의  
와척사후후다가천칭으로모친만나왔난이다연왕이반가  
오물칭양치못후야와타의모친이이너오난야이셔장부인  
나모장박기잇다가주부의말소리를듣고반가온마음은엇  
덧타출주업셔셔팡여취드러가니연왕이부인을부드르고와  
그디일청장상의열임인거말고면황천질의죽음사롭드

사근오난법이잇난가회수창과만경중의백골이되야슬제  
엇년살롬이살여잇나누집자손이모시잇나충열아내가일  
정살여왔나북방천리만리초국의잡피여죽게되유주부와  
만경창과회슈중의십년전의일은장씨다시만나질길줄과  
칠세자식환란중의이릿더니다시만나영화볼줄뭇중이나  
성과홀가장부인이척장동마철의집의잡피가던말이며옥  
좁을가지고야간도망후야노구집의셔환안나던말이며옥  
좁을볼의니코죽으려후다가환인동나쳐사집의사라난말  
을나<sub>고</sub>치셜화후며질기니그정곡은충양치못홀네라원슈  
엇던안자다가왈소자가달국의깃살제적진천봉이마철의  
삼형제라호칼의베혀웬수를좁푸난이다연왕과부인이못  
네권기더라천자를로시고성중의드러올시자식간나치후  
후난소리며만조제신후레후난말을엇지다키록후리이셔  
황후리후강장을습시후야전후왕사를냈스키무를제부

인의고상호말을듣고 치우고서 로올며 장부인이 치사후의  
를마지 안이후더라이셔원슈기천자와부왕을모셔황극전  
의천좌하시고오국사신례를마다문목수죄호연후의옥관  
도소를잡바드려게후의업지리고슈죄살간사호도사놈아  
네천지조화지술을비와청호남을가라치신그호영웅이황  
경년의잇난주른알고팡덕산의사러나셔너죽일주른모로  
난야네천일의정호담다려후기를천지일시라급덕물실후  
라더니엇지조고만호수충열을말자마셔너의놈더리몬져  
다죽난야도사엇자오뒤귀근지장은불가이어룡이라후너  
차막비천명이라 무삼말삼후오릿가만은소신이신그호술  
법을비와천장의나올제사히신장이며뒤명국강산신령과  
천귀만신파이미망양어두귀현지졸과천지벽후의신장  
귀졸을모도다불너너여지위신의너허두고승천입지후며  
성산성취후며변화무궁티니그중의슈독셔취팡덕산벽용

사의잇난 노승파 남히형산화선판이 소인영을 좃지안이후  
괴로고이알어압터니 천일원슈점전후시는 방법을보오니  
주창검도천신의 조화거니와 비용사 노승은 원슈우편의용  
위후고남의형산화선판은 좌편의시위후여쓰니 소인들을  
엇지후오릿가주판지체로바오기는 이리될주를알아쓰나  
죽사온들무삼호이잇사오릿가원슈마음의그놈의지조를  
탄복후고군사를지촉후야장안시의척참호후의오국사신  
을과도라보너고황성동문밖인가를다허러별장을지은  
후의직첩을도올시산동거국의드러오난 별총은모도다  
연왕의부치고원슈로남평여원양국옥시를주위남안오국  
을차지후야녹을부쳐쓰되덕사마덕장군검승상인수를주  
어국중만사를모도다막겨실후의녀나지못후게후고장부  
인으로정열부인의검동궁야후연국왕후를통후야경양궁  
의거처후게후고강승상으로달왕직첩을주어빈사지의의

잇게 하고 강부인으로 정숙부인의 계등 중추 언성왕후를 봉  
하야 시녀 삼백의 강승상의 위장 삼아 봉황궁의 거처 하고 환  
인동이 처사로 간의티부조훈관의 이부상서를 겸하야 육조  
를 다시리게 하고 영능관비연심으로 남평왕의 충공을 봉하  
야 언성왕후 직첩을 주워 본황궁의 강부인을 모시고 그나문  
계장은 차러로 변설을 드키니 라이셔 남국의 잡피가 강승상  
을 부모갓치 섬기던녀자는 다른사롬이 안이라 술호잔바다  
들고 원슈견의 자례하던노인의 열이라 그노인을 불너 상면  
호후의 조낭자로 남평왕의 우부인을 봉하고 그오리비로 충  
승디장을 삼아 그아비를 봉양하게 하니 상하인민이 송덕하  
난소리 천지전동하니 그안이 티평인가하노라



複  
引  
本

{ 朝鮮總督府  
警務總監印認可 }

版權  
所有

明治四十五年二月二十二日發行 定價金四拾錢

全州郡南門外九石里二統一戶

著作兼  
發行者  
杆 敬 輔

印刷者  
金 寬 先

發行所 完興社書舖

